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2019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2019년 4월 4일 늦은 7시, 16동 2층 라운지

# 순서

## ● 통과안건

---

1. 대의원 확정
  2. 안건 확정
  3. 2019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4. 진행 순서 확정
- 

## ● 보고안건

---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2. 2019 사회대 새맛이 기획단 보고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 ● 심의안건

---

1. 2018년 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2. 2019년 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 ● 논의안건

---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및 총노선
  2.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3. 2019 교육공동행동 사업계획
  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
-

## 통 과 안 건

1. 대의원 확정
2. 안건 확정
3. 2018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4. 진행 순서 확정

# 1. 대의원 확정

단과대  
운영위원회  
인준

사회대 학생회 (2)	정학생회장 이승준	언론/꿈반 (4)	학생회장 서혜지
	부학생회장 한만희		대의원 김여정
경제A/불꽃반 (4)	학생회장 김민수	지리/겨레반 (4)	대의원 장현우
	대의원 박해성		대의원 정연솔
	대의원 이준환		학생회장 이예찬
	대의원 김태수		대의원 진희주
경제B/飛반 (3)	대의원 박은우	정치/일치단결반 (4)	대의원 이경재
	대의원 박지후		대의원 임지현
	대의원 김성태		학생회장 이태경
경제C/始반 (4)	학생회장 강동훈	외교/나침반 (4)	대의원 김도연
	대의원 김성준		대의원 배민재
	대의원 김솔		대의원 김민정
	대의원 임규진		학생회장 김지민
사회/惡반 (3)	학생회장 이민주	사회복지/한길반 (4)	대의원 이준표
	대의원 김윤교		대의원 서영인
	대의원 이소민		대의원 박세민
한음반 (3)	학생회장 조성우	동아리연합회 (1)	연합회장 박주혁
	대의원 조주영		학생회장 최인영
	대의원 안현빈		대의원 이하진
심리/알반 (3)	대의원 오예슬	재적 대의원 수 : 43 의사 정족 수 : 22	대의원 이유진
	대의원 정한빈		대의원 류한상
	대의원 허지웅		

## 2. 안건 확정

단대운영위원  
회 인준

---

### ● 통과안건

2. 대의원 확정
2. 안건 확정
3. 2019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4. 진행 순서 확정

---

### ● 보고안건

2.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2. 2019 사회대 새맛이 기획단 보고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 ● 심의안건

2. 2018년 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2. 2019년 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 ● 논의안건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및 총노선
  2.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3. 2019 교육공동행동 사업계획
  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
-

## 3.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 제1조 총칙

제1항 본 시행세칙은 2019년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제2조 회의 진행과 관련된 규칙

제1항 회의 공개의 원칙

제2항 발언 자유의 원칙

제3항 다수결의 원칙

제4항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제5항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주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다루지 않는다.

제6항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제3조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제1항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제2항 발언 시 발언자는 성명과 발언의 종류를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말하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제3항 모든 의사진행 방식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의견이 같다.”가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해 이어서 논의하자.”이다. 따라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견은 기각된다.

제4항 동의가 이루어지면, 재청을 받아 각 동의안의 성격에 따른 방식으로 의결한다.

제5항 발언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 각 안건에 대한 발제: 15분 이내
2. 질의응답: 5분 이내
3. 기타 발언: 3분 이내

제6항 발제자는 질의응답, 표결 전 보충설명 이외의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제7항 의장은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 제4조 발언의 종류와 관련된 규칙

제1항 질의발언: 회의의 진행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발언

제2항 찬성/반대발언: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발언

제3항 규칙발언: 회의의 진행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이나 일반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

제4항 의사진행발언: 회의의 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발언

제5항 신상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자유로이 하는 발언이며 앞선 발언이 잘못 전해졌을 때 보충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

#### 제5조 안건 채택방법 및 회의 순서 통과와 관련된 규칙

제1항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지의 접수를 통하여 상정될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안건과 회의 순서가 결정된다.

제3항 수정안의 경우는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표결하여 상정한다.

#### 제6조 의안의 종류와 관련된 규칙

제1항 원안: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지의 접수를 통하여 개회 전에 상정이 결정된 안건

제2항 수정안: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안건

#### 제7조 안건 토론 및 의결과 관련된 규칙

제1항 원안만 상정되었을 경우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발제
3. 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4.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5. 원안에 대한 표결

제2항 수정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발제
3. 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4.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5.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발제
6.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7.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 상정에 대한 찬반토론
8.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 상정에 대한 표결
9.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10.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표결
11.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

제3항 표결 시 항상 찬성, 반대, 기권의 순으로 계산한다.

제4항 표결은 표결할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대의원만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표결 직전에는 항상 의사정족 인원을 다시 확인한다.)

## 부칙

제1항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가장 올바르고 실천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힘써야 한다.

제2항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3항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전의 준비과정(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대의원을 동의시키는 과정을 포함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대표자회의는 결정의 자리이므로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4. 진행순서 확정

정족수 확인  
개회 확인 / 민중의례

-

학생회장 선서

-

대의원 확정

안건 확정

시행세칙 확정

진행순서 확정

-

보고 안건

-

심의 안건

-

논의 안건

-

폐회

# 학생회장 선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진보의 요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37대 정학생회장 승준

제37대 부학생회장 만희

## 보 고 안 건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2. 2019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보고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발제 /  
사회대  
집행부

집행부 일상사업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대여사업</li> <li>- 사회대 도서관 사물함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말고사 간식사업</li> <li>- 불법촬영물 대응사업</li> <li>- 학생휴게실 안전확보</li> <li>-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동자 파업 연대활동</li> <li>- 우석경제관 대응 사업</li> <li>- 사회대, 인문대, 사범대 연합 동아리 홍보주간</li> <li>- 학생인권주간 &lt;개강파티&gt; 참여, 사회대부스 운영</li> <li>- 친목 프로젝트, 네모를 찾아서</li> <li>- 학과사무실 인력감축 대응</li> <li>- 단과대 예결산안 공개, 복수전공/부전공 문제해결, 장애인이동권 개선을 위한 학장단 면담</li> </ul>

## 일상사업(2018 12~2019 03)

### 1. 물품 대여사업

의약품, 생리대, 우산, 버너 등을 지급 및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산 대여사업 진행을 위한 물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매를 계획 중입니다. 생리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아 2층 여자화장실 및 도서관 화장실에도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 2. 사회대 도서관 사물함 배정

사회대 도서관에 있는 742개의 사물함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사물함 배정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공지방, 카카오톡 옐로아یدی,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지가 누락된 곳이 있어 많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사업 평가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개선을 위하여 다른 단과대 사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기획사업(2018 12~2019 03)

## 1. 기말고사 간식사업

지난 12월 사회대 라운지에서 기말고사 간식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토스트와 채식김밥을 제공하였습니다.

## 2. 불법촬영물 대응사업

작년 8월 25일 사회대 2층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던 외부인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외부인은 경찰로 인계되었고 사법과정이 진행 중이나, 사회대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는 사회대 행정실에 대하여 사회대 공간 내 학생안전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6동 24시간 개방이 진행된 이후로 사회대 측에서도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CCTV 추가 설치를 진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화장실 주변 CCTV 설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개선을 요청 드렸습니다.

## 3. 학생휴게실 안전확보

지난 2월 남학생 휴게실에서 외부인이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원경찰을 요청하였습니다. 범인은 도주하였으나 학생휴게실 안전문제가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 행정실 측에 학생휴게실 출입관리를 위한 카드키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4월 중으로 설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3.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동자 파업 연대활동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동자 파업에 연대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파업의 종료 이후에도 파업 당시 중앙도서관장 사회학과 교수님이 작성하셨던 칼럼에 대하여 사회과학도로써 입장을 남기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4. 우석경제관 대응 사업

작년 우석경제관에 대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정확한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대 학장단, 경제학부장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파악했던 것과는 계획이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계획되었던 추후 대응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석경제관은 2관까지 지어질 계획인데 현재 1관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제 간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배정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학부 교수연구실 또한 2관이 건설될 때까지는 이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16동 건물 내 공간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자치 공간 확충 요구는 2관 건설 계획의 가닥이 잡힌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 5. 사회대, 인문대, 사범대 연합 동아리 홍보주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약 1주일 간 인문대, 사범대와 연합하여 동아리 홍보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행사로 1층 로비에 포스터가 전시되었습니다. 본행사인 12일에는 동아리 부스 운영과 동아리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참여 인원이 저조하였습니다. 예년까지는 없던 새로운 행사인만큼 추후 동아리 소개제를 진행한다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남깁니다.

## 6. 학생인권주간 <개강파티> 참여, 사회대부스 운영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학생인권주간에 참여하여 사회대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해 H교수 투쟁의 당사자였던 만큼, H교수 투쟁의 기록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짧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형 부스가 아니라 전시형 부스였기 때문에 참여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분들이 전시물을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 7. 친목 프로젝트, 네모를 찾아서

새내기대학처럼 사회대 내에서도 구성원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네모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정든내기 멘토와 새내기 멘티들이 조를 이루어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 8. 학과사무실 인력감축 대응

사회대 학과사무실에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 조사 및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대 차원에서 수주하던 연구 규모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학과사무실이 없어지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 9. 단과대 예결산안 공개, 복수전공/부전공 문제 해결,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확장단 면담

단과대 예결산안 공개, 복수전공/부전공 문제 해결, 장애인이동권 개선을 위하여 확장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과대 예결산안 공개의 경우 4월 첫 주까지 내부 논의 진행 이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복수전공/부전공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본부에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나 사회대 차원에서도 입장문을 전송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장애인이동권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본부 예산 지원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기한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사회대 새맛이 기획단 보고

발제 /  
2019  
새맛이기획단

작성: 2019 사회대 새맛이 기획단 중앙집행국

### 1. 총괄평가

#### 2. 중앙집행국 운영평가

중앙집행국은 기획단장, 부기획단장과 새터하는사람들 기획팀장, 문화팀장, 사무팀장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집행국을 중심으로 새맛이기획단이 운영되었으나 중앙집행국 내의 소통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분담해야 할 업무가 적지 않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정작 중앙집행국 내부 소통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올해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프로그램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중앙집행국이 책임져야 할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새맛이기획단 차원에서 각 프로그램 별로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집행국 인원구성을 확대하고, 그 대신 정기적으로 중앙집행국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획단 내부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남긴다.

### 3. 특별팀 운영평가

#### 3.1 수시생OT 특별팀

수시생OT 특별팀은 수시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팀이다. 작년 피드백을 반영하여 올해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좋은 변화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레크리에이션 팀을 구성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 또한 진행자들 간의 리허설을 사전에 한 차례 준비하였으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긴다.

#### 3.2 내규 특별팀

2019년 내규 특별팀에서는, 작년 내규팀의 신설 목적에 따라 내규 초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올해 내규특별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은, 기존 내규 본문에서 생산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문점으로만 남았던 지점들에 대하여 내규해제문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내규해제문에서는 가령 외모지상주의를 내규에서 이야기하게 된 맥락, 혹은 사회적 소수자 담론 등 심도 있는 배경과 맥락을 담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점은 내규 본문과 내규해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짚단, 새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내야 하는 내규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규 작성이 내규팀 내부의 실무로만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무적인 면에서 내규특별팀에는

새짚단, 새하사 등 다양한 인원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선점을 남긴다. 내규는 새맛이 과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경험을 위하여 공동체적 합의를 거치는 정치적 합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내규 영상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획 및 집행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수시생 오리엔테이션이 1월 10일인데 본격적인 새맛이 기획단 활동이 12월 말이었던 점에서, 내규 영상 제작에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내년 새맛이에서는 반드시 내규 특별팀을 미리 구성하거나 내규 영상에 대한 초안을 미리 준비하여 영상 콘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영상 촬영 실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남긴다.

### 3.3 기초골든벨 특별팀

작년에 진행했던 ‘자료집 인사이드’를 올해는 ‘css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제를 맞히고 탈락자가 발생하고 최종 승리 반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되,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다. 프로그램 수정은 작년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크게 3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다.

작년 피드백을 3가지로 정리해보면 “1. 골든벨 문제들이 자료집에서만 나와서 문제가 재미가 없었다. 2. 사람들이 서서 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난잡했다. 3. 초반 탈락자들이 할 것이 전혀 없어 심심하다.”와 같은 내용이다.

각 피드백에 대한 수정사항은 “1. 자료집 이외에 문제들을 마련. 사회대 관련 문제, 상식 문제 등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2. 올해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모든 사람이 앉아서 게임을 진행했다. 서서 게임을 진행했을 때는 ox 구역을 나눠서 정답에 맞게 움직이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앉아서 ox 판넬을 드는 식으로 진행했다. 3. 도전 골든벨 tv 프로그램처럼 탈락자들이 생존자에게 종이비행기로 힌트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와 같았다.

다만 여러 방면에서 개편한 프로그램 또한 썩 좋은 평을 받지는 못 한 것 같아,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다방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 3.4 올림마당 개편 특별팀

예년까지는 새터하는 사람들에서 올림마당 MC로 지원을 받아 올림마당 진행을 위한 대본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올림마당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요청되었으며, 개편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올림마당 MC를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였다. 구성원들의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한 차례의 오프라인 회의 이후 온라인으로 준비과정을 진행하였다. 개편을 위한 논의는 특별팀 내에서 나름 잘 이루어졌으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별팀에만 집중되면서, 기획과 진행 모두 떠맡게 된 특별팀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올림마당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새짚단회의 및 새하사회의 등 보다 규모가 큰 기구에서 개편논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3.5. 새내기아고라 특별팀

올해는 새내기아고라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작년의 경우 새내기아고라는 새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된 학내 주요 의제들을 새터 이후 보다 심화시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새터 프로그램 준비에 보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새터 이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적 평가로 남긴다. 특히 새터가 끝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 쉬우므로, 새터 전부터 새내기아고라를 준비할 역량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차라리 새터를 가기 전에 새내기아고라를 준비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새내기아고라의 목적이 작년과는 달라지겠지만, 2017년까지는 실제로 새터를 가기 전에 새내기아고라를 진행하였다. 새터에 가기 전에 미리 의제들을 접하고 동기 및 선배를 만나 볼 수 있고, 새터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을 한 번 쌓음으로써 새터에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 4. 새짱단 운영평가

논의의 내용적 전개는 큰 갈등 없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조퇴, 결석하는 인원이 많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새짱을 대리하여 출석과 의결이 가능한 대리자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였는데, 내년에는 대리자 제도를 더 보완하고, 대신 불참 혹은 조퇴로 인한 패널티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여 회의 시간 및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남긴다.

### 4.1 기초/내규 논의

올해는 기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새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견이 이른 시기부터 제출되었고, 새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보니 기초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기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회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다보니 작성 및 확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본래는 새맛이기조를 바탕으로 새터하는 사람들에서도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남긴다.

내규의 경우 본래 계획대로라면 내규특별팀 내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일차적으로 토론된 이후에 새짱단 전체회의에서 피드백이 반영된 내용을 두고 토론 및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내규특별팀의 구성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짱단회의에서 내규 전체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전토론 및 피드백 과정을 충분히 마련하여 새짱단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남긴다.

### 4.2 과/반별 보고

과/반별 보고는 대체로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새짱단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퇴자가

많이 발생하여 보고 공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새터가 임박해 올수록 실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데 다들 격무에 시달리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반별보고 양식 및 제출기한을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새짱단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4.3 민중의례

민중의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별의견 수렴을 요청하였고, 새터 문화관 오리엔테이션에서 민중의례를 어떻게 소개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였다. 수렴된 의견만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합의적인 결론을 새맛이기획단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및 결정과정을 주로 새짱단회의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소수의견들이 충분히 내용적으로 토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남긴다. 새짱단회의는 각 과/반을 대표하는 새짱들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새짱단회의에서는 각 과/반의 다수의견 위주로 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 정도로 언급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년까지는 새짱단과 새하사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 총회"가 나름의 소수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나, 올해는 기획단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내년에는 올해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수의견들 또한 내용적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5. 새터하는사람들 운영평가

### 5.1 팀구성 및 총괄평가

새하사의 경우 새맛이의 전기-후기로 팀을 2개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전기의 경우 자료집글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3주간 진행하였다. 첫 주에서는 팀을 나누고, 자료집에 들어갈 대략적인 주제/키워드를 정하는 일을 하였다. 둘째 주부터는 자료집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는 기간을 가졌다.

자료집글의 수정이 끝난 후부터는 새터 진행 팀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왼손잡이 페스티벌과 해방5종으로 나누어 팀 지원을 받았으며, 복수지원을 허용하였다. 새터 진행 팀 역시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3주째 회의가 새터가 있었던 주간과 일치하였다.

정기적인 업무팀 외에도 내규특별팀, 새터 MC팀을 두었다. 또 새터 마당 중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MC 외에도 준비요원들을 받아 보다 규모 있는 TF로 회의 및 기획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집팀의 경우, 팀을 나눈 뒤 갖는 첫 번째 회의에서 전체회의 때 목차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드백을 남긴다. 목차 검토를 통해 대략적인 분량을 팀들 간 합의하고, 팀 내 주제가 너무 적은지, 혹은 해당 주제가 적절한지 등을 미리 꼼꼼히

검토할 수 있었다면, 뒤의 자료집 수정이 길어지는 것이 방지될 수 있었다는 평을 남긴다. 다만 자료집 글의 피드백은 작년과 달리 온라인으로만 받거나, 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전체회의 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는 내년에도 반영된다면 자료집 글을 보다 충분히 수정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터 진행팀의 경우 준비기간이 3주로는 부족하다는 평을 남긴다. 새터 진행팀은 1주 더 준비기간이 보장될 수 있었으나, 기초 논의가 늦어져(새터 진행팀은 기초에 맞춰 나눈다) 준비가 지연된 맥락이 있다. 이에 따라 기초 논의를 최대한 초기에 빠르게 마무리하고, 새터 기획 기간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남긴다.

또 팀 배정의 경우,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전체 인원을 원손잡이 페스티벌 팀에 배정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복수 지원하는 식으로 충족하는 안도 내년엔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레크레이션 진행자 인원은 올해보다 준, 각 팀당 2명이어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원손잡이 페스티벌은 대체로 새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분산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남긴다.

## 5.2 전체회의

새하사 전체회의에서는 1) 보고안건 - 새짚단 보고안건, 지난 회의 보고 안건, 필요 업무 확인, 각 팀 보고를 거쳤고, 2) 논의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전체회의의 경우, 주요 논점이 토론되거나 전체 자료집 글 피드백 등 토론이 필요했던 회의 이외에는 대체로 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회의 전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불참하는 회원은 늘 전체회의에 오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새맛이부터는 새하사 전체회의 후보 요일을 두 요일로 잡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해보는 것 역시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제안한다.

## 5.3 자료집팀 평가(인권, 교육, 자치, 사회)

### ● 인권

세 번 정도의 팀 회의를 거쳐서 자료집 글을 작성하였다. 역량 상의 이유로 팀별 별도 세미나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새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기존 학생회에서 사용하던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같이 간단한 대화 정도는 나누는게 좋을 것 같다. 기존에 각자 알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볼 시간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임해보자. 전체적인 내용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페미니즘(여성주의), 장애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채식주의로 구성하였고, 2017년 이전 새터 자료집의 내용 구성을 확인 한 뒤 인권 개괄 부분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는 타 단체나 동아리와의 연계를 시도했는데, 채식주의 파트에서는 비지모와 연계하여 글의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받았다. 특히 자료집 팀원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다른 측면의 의견이 많이 제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소수자 인권에서도 큐이즈와의 소통이 논의되었으나,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 글이 큐이즈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특히 동아리나 인권 단체와 연결하여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미리미리 작성하여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 작성 후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였다. 페미니즘 부분에서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새하사 전체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 팀원들과 글 작성자 사이의 시각이 상당 부분 달랐다. 전체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인지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글 작성자가 전체 피드백 회의에 계속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커뮤니케이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적어도 글 작성자들 중에서 각 팀당 한 명 이상은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피드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회의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4 해방5종팀 운영평가

##### ● 알담봉황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인력도 올해 진행한 2명이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알담봉황의 경우 배리어프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배리어프리를 적용한 게임과 적용하지 않은 게임을 나누기보다 최대한 다섯 게임 모두가 배리어프리 가능하다고 최대한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평가를 남긴다.

##### ● 제로 웃놀이

준비에 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다만 팀원들이 개인 일정이 많아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 ● 뒤집기 오목

뒤집기 오목에 필요한 말판이 기존에는 학생회실에 구비되어 있었는데, 소실되면서 새로 만들게 되었다. 폼보드를 사용하였는데, 앞뒤의 색깔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우드락을 사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뒤집기 오목은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게임이라는 점에서 해당 게임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해방 오종 게임에서 최대한 배리어프리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내년 새맛이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 ● 감각 부루마블

오프라인 회의는 1회 진행했으며, 그 이외에 온라인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해온 게임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사항은 없었고, 배리어프리에 관해서는 몸을 주로 사용하는 게임인 몸으로 말해요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사실 준비물이 제일 큰 문제였다.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독 준비물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였다. 그리고 냄비 같은 것도 방에서 빌리려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다. 미리 리스트를 확실히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준비 시간도 상당히 모자라서 프로그램 시작 직전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실제 식품을 이용하는 파트는 어느 정도 간소화 시킬 필요

가 있을 듯하다.

### ● 미션 149초

몇 해 간 해방5종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게임이다. 다만 작년 게임 중 디비디비답이 너무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 게임을 없애고 대신 브랜드 게임을 추가로 넣었다. 그 이외의 게임들은 큰 틀에서는 수정이 없었고, 키워드나 제시 단어 같은 디테일한 부분만을 기획하였다. 승리 팀을 위한 상품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과자를 많이 주어서, 미션 149초에서는 포카리스웨트를 준비했다. 원래는 숙취 해소에 좋은 갈아만든 배를 주려고 하였는데, 1.5L짜리를 구하지 못해 이온음료로 대체한 것이다.

## 5.5 왼손잡이페스티벌팀 운영평가

### ● 모두의 노동

예년에 있던 프로그램을 발전/수정하는 방향으로 기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던 다른 팀에 비하여 운영이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더 있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2~3회 정도 실행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좋았다. 특히 올해 모두의 노동은 60~70명 정도의 수용 인원을 세 그룹으로 공간을 나누어 진행하였고, 각 그룹당 두 명의 진행 새하사를 둘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게임 준비과정에서부터 팀을 나누어 스크립트를 연습하는 등의 실무 분배가 가능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또한 예년의 프로그램에서 토론이 부족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과도하게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부담스러웠다는 피드백에 따라, 토론을 심화하기 위해 마블판을 수정하는 동시에 토론 발제문을 준비했다.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내에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때에는, 토론 발제문에 대한 더욱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 미리 새짱단 회의에서 발제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남긴다.

### ● 99년생 이지혜게임

새짱단 및 새하사 전체 회의에서 진행상의 문제점(지나치게 작년 진행이 편파적인 팀이 있었다는 의견) 외에는 기획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된 점이 없었다. 이에 작년 기획안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지혜게임 스크립트에서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은 수정된 사례들로 사용하였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지혜게임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 날짜를 잡아두는 것을 제언한다.

### ● 마이인권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배정된 인원이 적어 준비 및 진행이 다소 어려웠다. 토론하고 글 쓰는 활동이 반복되다보니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중간 중

간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적절히 섞을 필요가 있다. 매년 나오는 피드백이지만 리허설이 정말정말 필요하다.

### ● 도전! 대학 Life

교육 부분에서 작년과 달리 전면 개편된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여, 대학 내 여러 지점들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각 지점에서 일상선지, 교육 관련 퀴즈, 교육 관련 주제 토론, 팀 대항 레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지점에서 팀이 선택하는 일상 선지에 따라, 또는 퀴즈나 레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지점을 달리 하는 식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게임이 상당히 복잡해져 기획이 어려운 점, 인원 및 시간 부족의 문제로 팀별 코스를 모두 정해놓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새내기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게임을 기획했다. 그리고 팀 배분에 있어서 한 팀에 6~7명 정도를 배정했는데 현실적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팀에 반이 섞이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본 프로그램 진행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당당사 게임을 진행했다.

### ● 자치가 빛나는 밤에

2회 정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때 토론과 게임을 병행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자치와 관련된 토론이 어렵다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보았다. 결국 2017년에 했던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의 포맷을 가져온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회의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올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진행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었고 프로그램 구조가 상당히 단순했기에 굳이 시뮬레이션을 해야할 필요성을 팀원들끼리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새터에서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스킵 해야 하는 일이 생겨, 실제 시뮬레이션을 그래도 한 번 이상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큐시트를 직접 작성해갔는데, 큐시트 보고 있는 것 보다 그냥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나은 것 같다. 그 외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다.

## 6. 홍보사업 평가

### 6.1 깔깔유머집

가장 적은 집행력으로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다만, 홍보와 상품 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여는/어울/울림 마당에서 사회자들이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깔깔 유머집에 대한 문구 홍보를 붙이는 등의 홍보 방안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번에 상품 마련이 잘 되지 않아서 중앙집행국 방에 남는 과자를 새내기분들께 드렸는데, 그것보다 새하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바로바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 가령 마카롱과 같은 - 상품을 미리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듯하다.

### 6.2 기초자보

기조 자보의 경우, 미리 기조 자보를 작성자들에게서 기조자보에 들어갈 간략한 요약본이나 문구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조자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올해보다는 보다 직관적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평을 남긴다. 또 붙이는 장소는 벽지가 아닌 창문이어야 이후 손방실 비용이 크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6.3 새터 진행경과 홍보

올해 새터 진행경과는 2019 새맛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진행하였는데, 페이지의 도달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사회대 학생회 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역량이 된다면 단순한 사업/행사 홍보 및 보고보다는 새짱-새하사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어 보다 새맛이에 대한 관심을 독려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 7. 실무평가

### 7.1 사전출발

사전출발한 선발대의 경우 오후 10시 반 출발 예정이었는데, 동아리와의 소통 미스로 인해 11시에 출발하였다. 또한, 새터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숙소 및 기획사 소통 과정에서 동아리를 담당할 사람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반드시 동아리 담당자를 미리 정하고, 동아리 장비나 리허설 안내사항 및 인솔에서 소통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남긴다.

새하사는 도착 이후 세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우선 방별 물품 배분 팀에서 남길 피드백은, 기획사측에서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파악했을 때 화장실 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여/남 화장실 표시나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표시용 종이를 챙겨가지 않았다. 내년에는 기획사측에 반드시 화장실 문이 잠기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듯하다. 기조자보팀의 경우, 벽지에 기조자보를 붙일 시에 손망실이 발생한다는 사안을 미리 전달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벽지에 손망실이 발생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기조자보는 제거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난간과 같은 부분에 붙일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공구물품 배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대 인솔 시, 전체적으로 어수선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기획사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방 정리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새하사 사전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사측에 반드시 1시에는 모든 방을 출입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한 배리어프리 인솔 관련해서,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따로 준비했던 방이 중앙집행국방보다 늦게 준비되어서 배리어프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을 인솔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역시 기획사측과 소통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

## 8. 사업별 평가

### 8.1 수시생OT

수시생OT는 사회대학생회 소개, 과/반 학생회 소개, 내규 소개,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대학생회 소개 및 과/반 학생회 소개, 내규소개는 경우 예년과 같이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은 예년보다 프로그램 개수가 1개 감소하였고, 과/반 신환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목요일 일정은 타임라인대로 진행되었으나 토요일 일정은 예정보다 30여 분 일찍 끝나게 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한 과/반이 존재하였다. 정확히 끝나는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기시간 및 장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줄 것을 추천한다. 또한 올해는 둘째 날 프로그램 일정이 토요일로 결정되어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추후에는 되도록 평일에 일정을 잡아 83동 대형 강의실 등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남긴다.

### 8.2 답사MT

이전까지 새짱단, 새하사가 동시에 1박2일로 새터 장소 답사를 갔던 답사MT를 진행하지 못 했다. 대신 당일치기로 새터 장소를 방문해 객실, 식당, 강당 위치 및 동선을 함께 체크하였다. 올해는 답사를 간소화해서 진행했으나, 숙소 내 장소들의 위치나 동선이 복잡한 편이 아니어서 새짱단/새하사가 길을 잃거나 헤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듯하다. 다만 답사MT의 기능에는 경로 숙지뿐 아니라 새짱단과 새하사가 새맛이 과정에서 같이 만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제공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반드시 1박2일로 MT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8.3 새터 문화관 오리엔테이션

새터 문화관 오리엔테이션은 통상적으로 새맛이 중앙집행국 5명 중 3명을 사전출발로 보내고, 기획단장/부기획단장 2명으로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2명에서만 진행할 경우 1명 진행시 1명이 숙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선발대에서의 연락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업무를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대 집행부원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사전에 요청하여 숙기 업무 등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관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이 길고 루즈하다는 피드백이 많아,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사회대 동아리 소개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들이 계속 '다들 지루하실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금방 끝날 테니 조금만 힘내세요.' 등의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올해는 문화관 반별 자리 배정을 당일 행사 전에 진행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자리 배정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행사 장소 자리 배치를 파악하고 이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8.4 새터 여는마당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부학장님 인사말씀을 새하사쇼가 시작되기 전에 배치해야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8.5 새터 어울마당

올해는 사회대 소속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 소속 동아리까지 공연신청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외부 동아리에는 10분의 공연시간이 배정된 반면, 사회대 동아리에는 13분에서 18분까지의 공연시간이 배정되었다. 공연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피드백이 제기되었다. 또한 방배정 및 공동구매 물품구매, 새터비 산정 등의 문제에 있어 기존에 참여하는 단위들이 아니다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연 동아리의 폭을 늘림으로써 공연의 전체 구성은 더 재밌었다는 평가를 남긴다. 동아리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여유가 있다면 내년에도 외부 동아리 공연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남긴다.

### 8.6 새터 해방5종

#### ● 감각 부루마블

라면 알아맞히는 게임이 너무 쉬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는 배리어프리를 고려하여 몸으로 말해요를 제외하였다. 과자, 음료수 맞추는 게임에 라면 국물 맞추는 부분을 추가한 것 말고는 포맷 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단, 유독 '감각'이 중심이 되는 게임이기에 배리어 프리를 고려할 경우 게임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각, 미각, 청각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임이 장애인 배제적인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 제로 웃놀이

프로그램 자체는 단순하지만, 참여하는 입장에서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줄을 서 있다가 표지판을 들거나 내리거나를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고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알담봉황

알담봉황의 경우 기획에 있어서는 큰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실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선 1) 장소-장비 문제가 있었다. 알담봉황에 사용할 음악과 색 테이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장소의 경우, 한 방을 가벽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스피커로 두 곳이 노래를 틀면 스피커가 동시에 울려서 노래를 틀 수 없었다. 이에 장소를 변경하거나, 새하사 측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2) 안전 문제가 있다. 알담봉황의 경우 1차적으로 기획에 있어 배리어프리 요소가 추가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 실제 진행에 있어서 게임의 특성상 충돌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알담봉황 진행 이전에 안전 사항에 대한 전달을 보다 정확히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뒤집기 오목

뒤집기 오목에 필요한 말판이 기존에는 학생회실에 구비되어 있었는데, 소실되면서 새로 만들게 되었다. 폼보드를 사용하였는데, 앞뒤의 색깔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우드락을 사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뒤집기 오목은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게임이라는 점에서 해당 게임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해방 오종 게임에서 최대한 배리어프리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내년 새맛이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 ●미션149초

실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진행자가 신경을 써야할 것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 따라서 게임 기획 및 구성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절대음감 게임이나 이어 그리기 게임은 각 팀이 키워드를 골라서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를 위한 키워드를 A4용지에 큰 글씨로 프린트해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종이를 뒤집어 놓거나 접어도 글자가 비쳐서 단어를 보려고 하면 보이는 정도여서, 동일한 게임을 내년 진행하는 경우 고려가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이어 그리기 게임의 경우 인당 그림 그리는 시간 3초를 엄밀히 준수할 수 있게 심판이 잘 제어를 해야 할 것이다.

해방5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피드백은, 한 타임에서 다음 타임으로 넘어갈 때 정확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이다. 해방 5종은 전체 총 세 타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타임에 게임을 진행하고 다음 타임에 다음 게임을 진행하려 이동하는 형식이다. 그렇기에 타임별로 시간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먼저 내려오는 반이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 별로 진행시간이 꽤 차이가 나기에 프로그램마다 끝나는 시간이 달랐다. 그리고 모두 게임 진행에 몰두하고 있어 무전기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타임별 시간이 지켜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눈치껏 다음 장소로 반들을 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듯하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 8.7 왼손잡이 페스티벌

### ●도전 대학라이프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된 프로그램이다. 실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 선지의 경우 참여하는 새내기들이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 했던 것 같다. 일상 선지를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한 조에 3팀이 있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팀별 레크를 진행할 때 레크를 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팀이 지루해하는 모습이 보여, 모든 팀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레크를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또한 토론의 경우 확실히 팀에 있는 정든내기의 역할이 중요했다. 따라서 토론 프로그램이 있으니 동행하는 정든내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달라고 사전 공지를 한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원페 교육팀에 사람이 4명뿐이어서 한 조당 한 명의 새하사가 진행을 담당했는데, 담당 새하사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고 가능하다면 많은 진행자가 확보되는 편이 나올 것이다.

### ●자치가 빛나는 밤에

2017년 새터의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하였다. 각 반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인원수가 많은 반은 한 반을 한 팀으로, 적은 반은 두 반을 한 팀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대략 7~8팀 정도로 구성하였다. 첫 부분에 레크리에이션으로 네 글자 게임(4글자 단어의 앞 두 글자를 말하면 뒤를 맞추는 것)을 했고, 제한시간 안에 몇 명이 맞히느냐로 대결했다. 단어를 200개 정도 준비했음에도 살짝 모자랐다. 게다가 진행 상으로 약간의 미스가 생겨서(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서 잘 안 들림. 팀 사이로 이동하기 불편)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레크리에이션 반응 자체는 좋았다. 레크리에이션 후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주고 각 조별로 토론 도우미들(사회대 고학번들 몇 명 섭외)을 배정한 뒤 답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연 자체가 어렵지 않고 일상 자치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도 많아서 새내기들 의견 교환이 생각보다 활발했다. 답변 작성 이후 답변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정 반을 배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MC들이 반의 답변을 골고루 읽어주려 노력했다. 이 부분이 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단, 진행 인력이 부족해 다른 반과 섞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조금 당혹스러워 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섞여서 대화가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었다. 여력이 된다면 반별로 팀을 구성하는게 어떨까 싶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보다 실제 진행시간이 훨씬 더 촉박하여, 프로그램 일부(자치 퀴즈)를 아예 제외하였다. 계획 상으로는 각 사연 사이에 자치 퀴즈를 넣어 각 반의 자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안 한 것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더 바람직했던 것 같다. 자치 퀴즈를 많이 맞힌 반에게 선물로 과자 한 박스씩 주기로 했는데, 자치 퀴즈가 스킵되면서 과자는 중집 방으로 갔고, 깔깔유머집 상품으로 유용하게 잘 쓰였다.

프로그램 진행 상으로는 딱히 복잡한 점이 없었기에 진행이 깔끔했고,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인데 토론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무난했던 프로그램이다.

### ●마이 인권 텔레비전

영상을 선정하고 고민을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수월하다. 그러나 고민의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해달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고민의 결과를 등장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작성되었다. 그러다보니 사회구조적 편견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는 줄어든 것 같기도 하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잘 고민해보면 좋겠다. 또한 형식이 라디오인 만큼 진행자들의 매끄러운 진행이 요구되는데 이는 대본을 준비하고 리허설을 열심히 해야 하는 문제이다.

### ●99년생 이지혜

실제 이지혜게임 진행에 있어서는 팀들 별로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평을 남긴다. 다만 작년보다 이지혜게임의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는 평을 남기고, 팀 내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날짜를 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지혜게임의 경우 진행에 있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팀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장점단점이 있기에 각 팀의 상황에 맞춰 진행해보면 좋을 듯하다.

또 보다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그렇지 않으면 각 팀의 목소리가 섞여 토론이 힘들), 올해의 경우 팀 별 점수제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팀 별 등수 매기기 등 팀별 진행이 끝난 이후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다는 평가를 남긴다.

### ●모두의 노동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각 파티션에 2명의 진행 새하사가 배치되었다. 한 그룹에 20명 정도의 새내기가 배치되었는데, 토론이 강화되다 보니 소그룹으로 정든 내기와 새내기가 1:5 정도의 비율로 토론을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 인원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남긴다.

게임 진행 시에는, 우선 마블판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A1 사이즈로 준비했는데 A0사이즈로 했으면 더 잘 보였을 듯하다. 또한, 2시간에 달하는 시간동안 진행 되는 데다가 많은 체력을 요하는 토론 시간 역시 중간 중간에 있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졌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게임 진행 과정에서 마블판의 구성과 시뮬레이션에서 미흡했던 지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토론칸을 예상보다 많이 배치하여 연속으로 토론칸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니게임의 준비가 미흡해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게임을 준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꼼꼼히 진행하여 미니게임이나 토론 진행에서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8.8 기초골든벨

앞서 말했던 3가지 수정사항에 중 자료집 이외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만든 것은 좋았던 것 같다. 다만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자 장소가 협조해 상당히 난잡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오히려 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직접 움직여서 더 재미있었다는 피드백 또한 존재했다. 여러 피드백을 수렴하여 앉아 있다가 문제를 보고 5초 안에 일어나서 이동하기와 같은 식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패자들의 힌트는 시간상의 문제 등

으로 인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 기획 상에서는 사전에 제작한 ox 판넬을 드는 식으로 정답을 표현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새터 장소로 이동시 판넬을 학교에 두고 오는 바람에, 그냥 손으로 ox를 표시하게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이 큐시트 상의 계획보다 지연되어 저녁식사 시간 및 이후 올림마당 시간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작년과 동일한 포맷에 많은 수정을 했으나, 올해도 그렇게 만족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모든 새내기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골든벨 형식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새터 골든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9 올림마당

정든내기들의 응원 무대로 이루어졌던 작년까지와 달리 올해 올림마당은 전면 개편을 하였다. 새터 사전에 만든 1분 이내 반별 응원 영상을 상영하고, 새터에서 주제에 맞게 반에서 보내준 사진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반 대항 레크를 하고 마지막에는 새터 결산 영상을 보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제 진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프로그램 중 새터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던 점이다. 일단 반별 영상의 수합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사진 콘테스트를 위한 사진 수합 또한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의 경우 사진을 수합하고 그것을 피피티로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램 직전에 수행했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css 골든벨이 늦게 끝난 여파도 있었지만, 사진 콘테스트 준비가 늦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준비했던 레크를 다 진행하지 못 했다.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가 루즈했다는 피드백이 다수 있었다. 그에 반해, 반별 영상은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다만 1분 이내라고 사전에 영상 기준을 정했으나,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 새터 이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반에 대한 처리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1분 기준을 지킨 반에게 내년 새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을 지킨 c반, 악반, 알반, 겨레반, 한길반은 내년 반별 영상에서 10초를 더 주어 70초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올해 1분을 넘긴 불꽃반, b반, 나침반, 일치반, 한음반, 꿈반은 60초까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결론 내렸다. 내년 새터에서 동일하게 반별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경우, 이 결정 사항을 꼭 준수해야 할 것이며 추가로 피드백 남길 사항은 영상 길이를 1분 30초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반별 대항 레크에서 문자를 보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퀴즈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자체는 좋았다는 평이다. 다만 올해는 진행 새하사 중 한 명의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에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장난 식의 문자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나은 방식을 강구하기를 추천한다.

## 8.10 과/반밤

과/반밤은 새짚단의 인솔 하에 잘 진행되었다. 과/반밤 장소의 경우 올해처럼 대강당을 3개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11개 과/반에 충분히 개별 공간이 배정될 수 있다.

## 8.11 달는마당

달는마당은 수월히 진행되었으나, 달는 마당 종료 이후 버스 출발 전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버스 출발 시간을 30분 정도 뒤로 잡아두는 것이 좋다.

## 9. 기타평가

### 9.1 새터비 지원사업

새터비 지원사업을 일찍부터 사회대행정실 측과 소통하였으나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새터가 임박해진 시점에서 다른 단과대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시 요청하였더니 사회대행정실에서 재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터 당일이 되어서야 새터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대행정실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9.2 예산: 지원금문제

올해 지원금은 총 지원금 1100만원을 반별 새내기 수 비례에 맞추어 분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새터비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전참 1/반참 0.5로 계산하여 참여 반 및 동아리 인원 비례로 배분하였다. 다만 반참 새터비가 정확히 전참 새터비의 절반이 아니기에, 이후 새터비 잔액을 배분하는 경우 비율을 정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9.3 장소

올해 수시생 오티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했는데, 목요일은 83동 대형강의실을 빌린 반면 83동이 주말에 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요일에는 아시아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만 아시아연구소의 강의실은 83동과 달리 경사가 없어 뒤쪽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좌석수가 넉넉하지 못 해 일부 정든내기들은 앉지 못 하고 서 있어야 했다. 그리고 올해는 아시아연구소에 마련된 추가 모니터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라서 벽에 전지를 붙이고 속기를 진행했다. 어쨌든 수시생 오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83동 대형강의실이 훨씬 더 적합하기에, 되도록 수시생 오티 날짜를 평일로 정해 83동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새터 발대식을 문화관 중강당을 이용했는데, 이곳은 좌석수가 부족해 많은 정든내기들이 행사 진행 시 서 있거나 계단 등지에 앉아있었다. 문화관의 경우 대여가 2개월 전부터 가능해(ex\_2월 대관이 12/1일부터 가능한 형식) 최대한 빠르게 새터 날짜를 정하고 발대식을 위한 장소로 대강당을 대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 9.4 공동구매 물품

작년 공동구매 물품과 거의 비슷하게 구매하였다. 스카치 테이프나 포카리스웨트, 물 정도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스카치테이프나 음료를 추가로 구매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공동구매 물품의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기에 추후에도 비슷한 정도로 물품을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

#### 9.5 동아리 공연 및 소통

기획팀장 뿐 아니라 기존 중집원 이외에 동아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동아리에서 있으면 더 원활한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획사에서 중집원 외에 동아리 총괄자를 새터 실무 당시 필요로 했다는 맥락이 있다. 중집의 인력 부족으로 기획팀장이 동아리 소통을 담당할 것이라면, 기획팀장이 우선 사전에 동아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방에 초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아리들의 편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소, 장비 등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남긴다. 새터 실무 당시 기획팀장이 새하사 업무도 총괄하고, 동아리 업무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능률이 떨어지고, 동아리들도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 동아리 총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남긴다.

#### 9.6 기획사

기획사는 작년 사회대 새터, 사회대 리부트를 함께 진행한 CWC였다.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 일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소통도 원활히 되어 좋았다. 손망실 및 계약인원 정산에서도 학생회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어 진행이 편하였다.

#### 9.7 비건식

올해 비건식의 경우 서브웨이, 야채김밥, 러빙헛 cafe 본점, 러빙헛 스마일점에서 메뉴 마련을 하였다. 서브웨이와 야채김밥은 숙소 근처인 영종도 내 지점에서 주문을 해 놓고 새터 2일차에 기획사에서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픽업을 해왔으며 러빙헛 지점에서는 새터 출발하기 전날 직접 메뉴를 수령해 와 보관하고 있다가 선발대가 챙겨 가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 러빙헛에서 마련한 메뉴들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야 했기에 중집방에서 식사를 했고, 따라서 중집 중 한 명이 비건식을 드실 때 같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야채김밥의 경우 인당 1줄을 준비했는데 양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기획사측에서 차량을 준비해주었던 점에서 픽업이 매우 수월했다. 다만 비건식의 메뉴 중 야채김밥은 너무 부실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픽업 차량이 준비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거리가 멀더라도 다양한 메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발제 /  
회계감사위원회

## 2019 상반기 사회대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1. 회계감사위원

- 집행위원회: 김도연(일치), 황지현(시)
- 운영위원회: 최인영(한길), 조성우(한음)
- 동아리연합회: 구본성

### 2. 회계감사절차

- 3월 14일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 3월 27일 회계감사위원장 최인영 호선
- 3월 27일 오프라인으로 영수증과 입출금내역 대조
- 3월 31일까지 유실된 영수증 등 확인 요청, 그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은 대표자회의 당일 현장 발제하기로 논의.

### 3. 감사결과보고

- 1) 회계감사대상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제37대 사회대 학생회의 회계기록과 2018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제36대 사회대 학생회의 회계기록.
- 2) 첫 오프라인 회의를 3월 27일 오후 8시로 결정. 최인영, 조성우, 김도연 참가. 제37대 사회대 학생회와 제36대 사회대 학생회 영수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대조 후 제37대 사회대 학생회의 영수증 1개, 제36대 사회대 학생회의 영수증 7개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4/1까지 영수증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함. 또한 4/1까지 정리된 회계 기록과 입출금내역의 비교를 보충한 것을 제출받아 온라인으로 검토하기로 함.
- 3) 다음의 항목은 추가적인 설명 및 특이사항임.

####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 특이사항

186, 113, 99번: CP카드

169, 25번: 타 은행 송금 수수료 발생

103번: 영수증에는 32,000원이라고 나와 있음. 36,000원을 처음에 보냈는데 차후 영수증을 보니까 3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4000원을 환급 받았음.(60번 참고)

81번: 새터 버스 주차비. 새터 출발할 때 버스 기사분들이 대기하다가 주차비가 발생하

여 영수증을 직접 전달해주시기가 곤란하여 사진 자료로 보내주심. 영수증 번호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영수증이라고 판단됨.

80번: 손망실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 39번에 손망실 금액 납부가 있음.(벽지 및 반내에서의 방 손망실) 책임소재를 묻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손망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획사측에 보내고, 손망실 금액을 반에서 받은 이후 손망실 금액을 보냄.(39번 참고)

60번: 103번 참고

51번: 인권주간 부스 설치비. 인권주간 부스 설치 금액을 결제한 것은 동아리연합회. 이것을 동아리연합회에 직접 낸 것이 아니라 같이 인권주관을 진행했던 인권특위에서 내줌. 동연에 영수증 요청하여 받음.

42번: 철물점에서 천막을 산 것. 계산은 현금으로 28000원. 철물점의 계산 방식이, 제품의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찍고 싶은 만큼 가격을 찍어서 굵는 것. 그래서 사장님이 영수증 나오는 기계에 28000원을 찍으셨는데 어림잡아서 가격을 찍어서 2원이 더 영수증상 더 나옴. 28002원이 영수증으로 찍힘.

25번: 금액 1,138,000원을 보냈는데 박현수 님에게 10만 7,500원을 환불 받음.(22번)

22번: 25번 참고

2,3번: 인사범 동소제에서 예산안 짤 때 각 단대에서 60만원 씩 180만원으로 책정. 집행 결과 돈이 남아서 각 단대에 환급한 내역.

### **제36대 사회대 학생회**

10월 6일 이전은 지난 단학대회에서 감사 완료. 단학대회는 10월 6일 이후에 했지만 당시 회감위가 10월 5일까지 감사하였으므로 10월 6일 내용부터 감사.

67번: 영수증 분실로 회감위에서 확인하지 못함. 현장발제 예정.

66,65번: 농활 혹은 리부트 관련 이분들이 내야 하는 것인데 늦게 낸 듯.(수정 필요)

62번: 이아인 씨 농활 반참 금액

61번: 농활 도시락을 당시 부학생회장의 계좌로 선 결제를 하고 환급해야 하는데 환급하지 않은 것을 회감위에서 발견하고 단학대회/회감위에서 확인하여 환급받음.

58번: 리부트 강당비 50만원 영수증 파일 확인

57번: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체육대회 강당 대관료.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발제 예정.

38번: 리부트 버스비 60만원.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발제 예정.

33번: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발제 예정.

25번: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발제 예정.

22번: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발제 예정.

18번: 가을농활 회계를 자전에서 해서 사회대에서는 분담금만 납부.

## 심 의 안 건

1. 2018년 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2. 2019년 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1. 2018년 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발제 /  
36대 사회대  
학생회

## 1. 제36대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 사업 결산안

수입		지출	
2018 3/4 이월금	424,904	37대 이월금	43,364
총학생회 학생회비	1,482,133	기타 자보	180,000
자치지원금	800,000	기타 사무비	7,600
사집 기부금	640,000	수시생 응원	330,020
각종 행사 참가비	314,000	새터 환급	359,518
이자	964	선거 공영금	300,000
		선거 지킴이 간식	26,000
		선거 자보	35,100
		가을농활 분담금	100,000
		진보넷 호스팅비	77,000
		선거 사무비	8,050
		기말고사 간식사업	123,000
		체육대회 사무비	219,150
		체육대회 심판비	190,000
		체육대회 우승 상금	300,000
		리부트 버스비	600,000
		리부트 강당 대여비	500,000
		농활 도시락 미입금 내역	150,000
		후원금	83,000
		세금	20
합계	3,662,001	합계	3,661,822

통장흐름표 (~2019.12.23.)

순번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확인여부	비고
1	2018/12/23 07:52:41	20원		179원	결산소득세		농협 000079		o	
2	2018/12/23 07:52:41		199원	199원	예금이자		농협 000079		o	
3	2018/12/09 05:45:02	43,364원		0원	NH올원 뱅크	36대 이월금	농협 000079	한만희	o	
4	2018/12/07 10:09:03		379원	43,364원	센터일 괄	NH체크할인	농협 000998		o	
5	2018/12/06 06:02:55	180,000원		42,985원	NH올원 뱅크	정해숙	농협 000079	정해숙	o	각종 자보
6	2018/11/30 19:35:01	161,380원		222,985원	NH올원 뱅크	수시생 응원 환급	농협 000079	황지현	o	
7	2018/11/30 19:32:53	129,504원		384,365원	NH올원 뱅크	새터비 환급(비)	농협 000079	김도연	o	
8	2018/11/30 19:32:09	129,504원		513,869원	NH올원 뱅크	새터비 환급(불꽃)	농협 000079	김승찬	o	
9	2018/11/30 19:31:24	100,510원		643,373원	NH올원 뱅크	새터 잔액 환급(일치)	농협 000079	오예림	o	
10	2018/11/27 00:32:50	300,000원		743,883원	NH올원 뱅크	선거공영금	농협 000079	한만희	o	
11	2018/11/23 23:23:34	30,000원		1,043,883원	NH올원 뱅크	류서연	농협 000079	류서연	o	맑음 후원

12	2018/11/23 23:22:37	3,000원		1,073,883원	NH올원 뱅크	강유진	농협 000079	강유진	o	총직제 후원
13	2018/11/22 19:08:55	7,600원		1,076,883원	NH체크	CU서울대학 교신양점	농협 000079		0	투명테이프
14	2018/11/21 21:31:40	159,640원		1,084,483원	NH체크	(주)GS수퍼 관악점	농협 000079		0	응원간식
15	2018/11/21 21:04:18	9,000원		1,244,123원	NH체크	(주)다이소 아성산업	농협 000079		0	수시생응원비 닐봉다리
16	2018/11/19 11:07:05	14,390원		1,253,123원	NH올원 뱅크	지킴이간식	농협 000079	최인영	o	지킴이 간식비
17	2018/11/19 10:09:57	11,610원		1,267,513원	NH체크	CU서울대학 교신양점	농협 000079		0	지킴이간식비
18	2018/11/17 00:38:49	100,000원		1,279,123원	NH올원 뱅크	가을농활분 담금	농협 000079	차우형	o	
19	2018/11/15 23:14:47	7,500원		1,379,123원	NH체크	TnB	농협 000079		0	선거자보
20	2018/11/11 19:45:41	10,000원		1,386,623원	NH체크	TnB	농협 000079		0	선거자보
21	2018/11/10 17:53:22		320,000원	1,396,623원	NH올원 뱅크	근로장학 기부금	농협 179591		o	
22	2018/11/08 01:36:21	77,000원		1,076,623원	NH올원 뱅크	진보넷 호스팅	농협 000079	진보네 트워크 센터	x	
23	2018/11/07 15:56:24	6,550원		1,153,623원	NH체크	알파문구서 울대점	농협 000079		0	사무비

24	2018/11/07 15:46:49	17,600원		1,160,173원	NH체크	TnB	농협 000079		0	선거자보
25	2018/11/07 10:10:41	23,150원		1,177,773원	NH올원 뱅크	체육대회 혜지 환급	농협 000079	서혜지	x	
26	2018/11/07 10:09:50		240원	1,200,923원	센터일 괄	NH체크할인	농협 000998		o	
27	2018/11/06 18:42:49	30,000원		1,200,683원	NH체크	TnB	농협 000079		0	나무프린트
28	2018/10/28 18:59:40	1,500원		1,230,683원	NH체크	알파문구서 울대점	농협 000079		0	비표
29	2018/10/25 17:08:02	3,000원		1,232,183원	NH올원 뱅크	체육대회 환급	농협 000079	홍원준	o	호루라기 2개(이미지파 일)
30	2018/10/25 17:07:29	6,000원		1,235,183원	NH올원 뱅크	체육대회 환급	농협 000079	최승우	o	물
31	2018/10/25 17:06:50	110,000원		1,241,183원	NH올원 뱅크	체육관 대관료	농협 000079	서혜지	o	
32	2018/10/17 19:10:19	3,000원		1,351,183원	NH체크	티머니택시	농협 000079		x	간식사업이동
33	2018/10/17 18:43:22	120,000원		1,354,183원	NH체크	이삭	농협 000079		x	기말고사 간식
34	2018/10/16 23:04:32		15,000원	1,474,183원	NH올원 뱅크	최용혁	농협 179591	지난 단대	o	헤드셋
35	2018/10/16 23:04:04		75,000원	1,459,183원	NH올원 뱅크	최용혁	농협 179591	지난 단대	o	
36	2018/10/		50,000원	1,384,183원	NH올원	최용혁	농협	리부트	o	리부트

	16 23:03:26				뱅크		179591			
37	2018/10/ 16 23:02:44		92,000원	1,334,183원	NH올원 뱅크	최용혁	농협 179591	농활	o	농활비 덜 낸 부분
38	2018/10/ 16 23:01:17	600,000원		1,242,183원	NH올원 뱅크	리부트 버스비	농협 000079	최용혁	x	리부트 버스
39	2018/10/ 16 22:15:27	50,000원		1,842,183원	NH올원 뱅크	LOL 우승 상금	농협 000079	최지원	o	
40	2018/10/ 16 22:14:48	50,000원		1,892,183원	NH올원 뱅크	하스스톤 우승 상금	농협 000079	고동환	o	
41	2018/10/ 16 22:13:57	50,000원		1,942,183원	NH올원 뱅크	배드민턴 우승 상금	농협 000079	신석환	o	
42	2018/10/ 16 22:13:30	50,000원		1,992,183원	NH올원 뱅크	남자 농구 우승 상금	농협 000079	서장원	o	
43	2018/10/ 16 22:12:53	50,000원		2,042,183원	NH올원 뱅크	여자 농구 우승 상금	농협 000079	권유진	o	
44	2018/10/ 16 22:11:59	50,000원		2,092,183원	NH올원 뱅크	풋살 우승 상금	농협 000079	송기우	o	
45	2018/10/ 15 17:37:40	50,000원		2,14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심규원	o	
46	2018/10/ 15 17:37:11	40,000원		2,19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장동수	o	
47	2018/10/ 15 17:36:39	20,000원		2,23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홍원준	o	
48	2018/10/ 15	20,000원		2,25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김홍석	o	

	17:36:05									
49	2018/10/15 17:35:19	10,000원		2,27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조성우	o	
50	2018/10/15 17:34:38	10,000원		2,28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손동현	o	
51	2018/10/15 17:34:05	10,000원		2,29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이중서	o	
52	2018/10/15 17:33:36	10,000원		2,30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이형주	o	
53	2018/10/15 17:33:07	10,000원		2,31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김준영	o	
54	2018/10/15 17:32:24	10,000원		2,322,183원	NH올원 뱅크	심판비	농협 000079	신겸	o	
55	2018/10/12 15:35:36		1,482,133 원	2,332,183원	대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농협 000079		o	
56	2018/10/12 15:30:01		800,000원	850,050원	실시간 이체	농활지원금	농협 000079		o	
57	2018/10/11 13:49:53	40,000원		50,050원	NH올원 뱅크	서해지도17 18	농협 000079	서울대 학교관 학생	x	체육대회대관 비
58	2018/10/10 16:32:33	500,000원		90,050원	NH올원 뱅크	리부트 강당비	농협 000079	장대건	o	리부트 강당
59	2018/10/10 16:19:16		320,000원	590,050원	NH올원 뱅크	근장비	농협 179591		o	
60	2018/10/09	50,000원		270,050원	NH올원 뱅크	노동연금 지원금	농협 000079	김소연	o	

	15:33:10									
61	2018/10/09 11:24:42	150,000원		320,050원	NH올원 뱅크	농활 도시락	농협 000079	최용혁	o	지난 단대 회감위에서 이미 확인함
62	2018/10/08 12:15:34		50,000원	470,050원	CD현금	이아인	농협 002004		o	농활비 덜 낸 부분
63	2018/10/08 10:11:57		146원	420,050원	센터일 괄	NH체크할인	농협 000998		o	
64	2018/10/08 02:04:35		2,000원	419,904원	실시간 이체	이범휘	농협 001191		o	농활비덜낸부 분
65	2018/10/08 00:46:29		15,000원	417,904원	실시간 이체	김수정	농협 001191		o	3월확간수
66	2018/10/07 21:58:28		15,000원	402,904원	실시간 이체	윤민정	농협 001191		o	3월확간수
67	2018/10/06 12:42:29	37,000원		387,904원	NH올원 뱅크	체육대회 트로피	농협 000079	윤민정	x	

## 2. 2019년 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발제 /  
37대 사회대  
학생회

### 1.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 사업 결산안

수입		지출	
36대 이월금	43,364	사무비 <sup>1)</sup>	261,800
자치지원금	1,200,000	플랑 및 자보 <sup>2)</sup>	24,000
사집 기부금	654,000	새내기 자료집	125,664
인사범 홍보주간	1,260,000	인사범 홍보주간	1,745,540
서울대 총학	37,408	생활문화팀 사업 <sup>3)</sup>	30,590
기타 <sup>4)</sup>	5,284	기말고사 간식사업	200,000
		인권주간 전시사업	153,650
		개강총회 유인물	39,800
		기타 <sup>5)</sup>	490
합계	3,200,056	합계	2,581,534

- 1) 프린트기 토너 및 A4 용지, CP게이트 이용료 등
- 2) 수시생오티 + 서울대 병원 기자회견 +총장 직선제 자보 등등
- 3) 남학생 휴게실 탈취제 및 게시판 사업 등
- 4) 예금이자 및 학생회실 청소 당시 발견한 현금
- 5) 세금

2. 2019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결산안

수입		비고	지출		비고
과반 새터비	46,212,500		과반 지원금	10,998,540	
동아리 새터비	3,275,500		새터비 환급	1,909,440	
중집 새터비	237,000		송금수수료	3,500	
공동구매	4,311,350		새하사동물잡옷	623,700	
각반 손망실 금액	352,000		새터 사무비	485,890	비닐, 전지, 의약품 등
행정실 지원금	12,800,000		새터 자료집	1,040,000	
<b>총액</b>	<b>67,188,350</b>		CSS골든벨 및 울림마당	63,200	상품(양주 및 과자)
			새짚단 완장	74,500	
			공동구매(정유통)	4,311,350	
			답사비 지원	275,000	답사 버스비 지원
			해방 5종/원페	351,100	프로그램 상품 및 소품
			비건식	99,600	
			새터비지원사업	126,000	
			기조자보	144,000	36장
			<b>새터대금</b>		
			숙식(2박5식)	30,147,000	47,000/1인
			손망실	925,000	
			강당 사용료	1,700,000	
			엠볼런스(EMS)	1,800,000	
			여행자 보험	750,000	1,000원/1인
			음향 및 무대장비	2,600,000	
			버스	8,630,000	
			선발대 중식	131,800	한술 도시락
			<b>총액</b>	<b>67,189,620</b>	

### 3. 인문대·사회대·사범대 홍보주간 예·결산안

#### - 인문대·사회대·사범대 홍보주간 예산안

항목	금액
천막 설치비	500,000
무대음향	600,000
무대장비	300,000
부스운영비	200,000
예비비	200,000
<b>총액</b>	<b>1,800,000</b>

#### - 인문대·사회대·사범대 홍보주간 결산안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단과대 참가비	1,800,000	단과대 공동 항목	현수막	53,200
동아리 참가비	60,000		리플렛	90,000
잔액 환급			팝콘기계대여 <sup>6)</sup>	98,500
			천막 및 공연 설비	1,075,000
			잔액 환급	362,200
			이체 수수료	500
			<b>합계(A)</b>	<b>1,679,400</b>
		사회대 항목	집행부 부스 상품	35,000
			사무비 <sup>7)</sup>	31,140
			<b>합계(B)</b>	<b>66,140</b>
<b>합계</b>	<b>1,860,000</b>	<b>합계</b>	<b>합계(A+B)</b>	<b>1,745,540</b>

6) 대여비 96,000원 + 추가재료 환불비 2,500원

7) 우드락 및 순간접착제 등

통장흐름표 (~2019.03.27.)

순번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영수증번호	비고
1	2019/03/27 12:10:27	51,000원		567,252원	실시간이체	11PAY	농협 000541		67	사무비(프린터기 잉크비)
2	2019/03/27 11:58:53	181,100원		618,252원	NH올원 뱅크	인사법 인문대 환급	농협 000079	남우준		인사법 홍보주간 잔액 배분.
3	2019/03/27 11:55:38	181,100원		799,352원	NH올원 뱅크	인사법 사범대 환급	농협 000079	신성민		인사법 홍보주간 잔액 배분.
4	2019/03/27 10:55:44		600,000원	980,452원	스마트 당행	인문대 학생회	농협 000079			
5	2019/03/25 22:09:14	50,000원		380,452원	인터넷 당행	비서관 1학기 분담금	농협 000079			
6	2019/03/25 22:03:57	12,240원		430,452원	NH올원 뱅크	FY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박진규		
7	2019/03/25 22:03:56	16,830원		442,692원	NH올원 뱅크	고어헤드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황정하		
8	2019/03/25 22:02:08	7,650원		459,522원	스마트 당행	자스민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9	2019/03/25 22:02:07	26,010원		467,172원	스마트 당행	소나무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10	2019/03/25 22:02:06	15,300원		493,182원	스마트 당행	바람몰이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11	2019/03/25	125,664원		508,482원	NH올원 뱅크	새내기자료 집 환급	농협 000079	조담빈	66	

	16:57:53									
12	2019/03/24 09:06:58	40원		634,146원	결산지 방세		농협 000079			
13	2019/03/24 09:06:58	450원		634,186원	결산소 득세		농협 000079			
14	2019/03/24 09:06:58		3,274원	634,636원	예금이 자		농협 000079			
15	2019/03/22 15:32:07		600,000원	631,362원	실시간 이체	사회대지원 비	농협 000079			
16	2019/03/18 10:38:52	241,700원		31,362원	NH올원 뱅크	홍보주간 사범대환금	농협 000079	신성민	65	
17	2019/03/15 14:50:25		37,408원	273,062원	대체	서울대총학	농협 000079			18년도 2학기 학생회비 미지급분 배분액.
18	2019/03/13 14:15:19		20,000원	235,654원	NH올원 뱅크	김영광	농협 475114			인사범 동아리 금액 수입.
19	2019/03/13 14:10:10		20,000원	215,654원	PC신한 은행	강한	신한 0263106			인사범 동아리 금액 수입.
20	2019/03/13 12:24:01		20,000원	195,654원	PC우리 은행	노하영	우리 0201692			인사범 동아리 금액 수입.
21	2019/03/13 11:51:20	10,710원		175,654원	스마트 당행	사자후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22	2019/03/13 11:51:01		107,500원	186,364원	E-우리 은행	박현수	우리 0205122		64	25번 항목 참고.
23	2019/03/13 11:50:38	6,120원		78,864원	스마트 당행	트랩드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24	2019/03/13 11:49:48	22,950원		84,984원	스마트 당행	추플 새터비 환급	농협 000079			
25	2019/03/13 11:01:07	1,183,000 원		107,934원	E-우리 은행	동소제 공연/천막	농협 000079	64	22번에서 추가금액 환불받음. 수수료500원발생	
26	2019/03/12 15:46:35		600,000원	1,290,934원	폰카카 오	사범대학생 회	카카오뱅 크 0900032			
27	2019/03/11 01:18:26	830,880원		690,934원	E-신한 은행	거래반새맞 이지원금	농협 000079			
28	2019/03/11 01:18:25	1,046,960 원		1,521,814원	E-카카 오	알반새맞이 지원금	농협 000079			
29	2019/03/11 01:18:24	1,005,110 원		2,568,774원	E-신한 은행	약반새맞이 지원금	농협 000079			
30	2019/03/11 01:18:23	1,647,800 원		3,573,884원	E-국민 은행	시반새맞이 지원금	농협 000079			
31	2019/03/11 01:18:22	1,639,430 원		5,221,684원	E-하나 은행	볼꽃반새맞 이지원금	농협 000079			
32	2019/03/11 01:05:02	830,820원		6,861,114원	NH올원 뱅크	꿈반새맞이 지원금	농협 000079	허현준		
33	2019/03/10 23:53:15	1,605,820 원		7,691,934원	E-우리 은행	비반새맞이 지원금	농협 000079			
34	2019/03/10 23:49:52	1,354,450 원		9,297,754원	인터넷 당행	나침반새맞 이지원금	농협 000079			
35	2019/03/10 23:37:24	1,274,400 원		10,652,204원	NH올원 뱅크	일치반새맞 이지원금	농협 000079	장대엽		
36	2019/03/	699,570원		11,926,604원	NH올원	한길반새맞	농협	박기정(서울		

	10 23:36:30				뱅크	이지원금	000079	대 한		
37	2019/03/ 10 23:35:04	857,930원		12,626,174원	NH올원 뱅크	한음반새맞 이지원금	농협 000079	박성호		
38	2019/03/ 09 14:09:52	35,000원		13,484,104원	실시간 이체	쿠팡	농협 000079		63	인사범 홍보주간 사회대 부스 상품.
39	2019/03/ 08 15:48:43	925,000원		13,519,104원	NH올원 뱅크	새터 손망실금액	농협 000079	주식회사 씨더블유씨	33	
40	2019/03/ 07 14:20:48	24,000원		14,444,104원	NH올원 뱅크	자보프린트 비	농협 000079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62	
41	2019/03/ 06 20:04:31	5,900원		14,468,104원	스마트 당행	인권주간 사무비	농협 000079		61	
42	2019/03/ 06 19:17:55	28,000원		14,474,004원	NH올원 뱅크	인권주간천 막금액환급	농협 000079	한만희	60	
43	2019/03/ 06 19:15:16	48,000원		14,502,004원	스마트 당행	인권주간 사무비	농협 000079		59	
44	2019/03/ 06 18:47:23	3,000원		14,550,004원	NH올원 뱅크	제로윳놀이 물품환급	농협 000079	안예라	58	
45	2019/03/ 06 18:29:00		80,000원	14,553,004원	실시간 이체	허현준	농협 001191			꿈반 손망실 비용.
46	2019/03/ 06 17:52:37	31,140원		14,473,004원	스마트 당행	홍보주간 사무비	농협 000079		57	
47	2019/03/ 06 17:38:36	4,400원		14,504,144원	NH올원 뱅크	해방5종물 품환급	농협 000079	이석준	56	
48	2019/03/ 06	14,550원		14,508,544원	NH체크	서울대생활 협동조합	농협 000079		55	인권주간 사무비

	09:33:34									
49	2019/03/04 12:52:47	39,800원		14,523,094원	NH올원 뱅크	사집개총홍 보유인물	농협 000079	(주)프린트 시티	54	
50	2019/03/02 12:16:21		112,000원	14,562,894원	E-우리 은행	일치손망실	우리 0842718			
51	2019/02/28 22:17:49	57,200원		14,450,894원	NH올원 뱅크	인권주간부 스설치비	농협 000079	윤민정	53	
52	2019/02/28 16:17:42		80,000원	14,508,094원	E-우리 은행	한길반이불 요	우리 0203195			한길반 손망실 비용.
53	2019/02/28 15:16:21		80,000원	14,428,094원	실시간 이체	거래반	농협 001191			거래반 손망실 비용.
54	2019/02/27 19:58:41	12,860원		14,348,094원	NH올원 뱅크	해방5종물 품환급	농협 000079	이용희	52	
55	2019/02/27 19:57:44	6,100원		14,360,954원	NH올원 뱅크	새터 사무비	농협 000079	이용희	51	
56	2019/02/27 19:55:02	23,690원		14,367,054원	실시간 이체	쿠팡	농협 000079		50	생문팀 사업-의견창구함, 남휴 탈취제
57	2019/02/27 15:28:48	1,040,000 원		14,390,744원	NH올원 뱅크	새터 자료집	농협 000079	정해숙	49	
58	2019/02/27 15:16:55		32,000원	15,430,744원	CD현금	039-2603	농협 002004			새터 추가금액(김수정)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입금한내역.
59	2019/02/25 14:32:56		334,000원	15,398,744원	NH올원 뱅크	최용혁	농협 179591			근장비 기부금.
60	2019/02/25		4,000원	15,064,744원	폰우체 국	오루리	우체국 0712372		22	새터 비건식 환불 금액. 103번 참고.

	13:34:01									
61	2019/02/23 13:37:58	17,480원		15,060,744원	NH올원 뱅크	감각부루마 물물품환급	농협 000079	이용희	48	
62	2019/02/23 13:37:03	7,100원		15,078,224원	NH올원 뱅크	해방5종물 품환급	농협 000079	이용희	47	
63	2019/02/23 13:36:32	3,400원		15,085,324원	NH올원 뱅크	깔깔퀴즈상 품 환급	농협 000079	이용희	46	
64	2019/02/23 13:35:13	126,480원		15,088,724원	NH올원 뱅크	새터 중 집 물품	농협 000079	이용희	45	
65	2019/02/23 13:33:28	270,010원		15,215,204원	NH올원 뱅크	새터과반밤 비닐 환급	농협 000079	이용희	44	
66	2019/02/22 15:20:32		23,500원	15,485,214원	폰카카 오	박성호	카카오뱅 크 0900032			한음반 새터비
67	2019/02/22 14:13:46	7,000원		15,461,714원	NH올원 뱅크	원페 마인텔 상품환급	농협 000079	이주상	43	
68	2019/02/22 01:57:28		79,000원	15,468,714원	E-신한 은행	한만희	신한 0263151			중집 새터비.
69	2019/02/22 01:09:57	29,600원		15,389,714원	NH올원 뱅크	새터 비건식 서브웨이	농협 000079	최인영	42	
70	2019/02/22 01:09:28	6,000원		15,419,314원	NH올원 뱅크	새터 비건식 김밥	농협 000079	최인영	41	
71	2019/02/22 01:06:47	14,800원		15,425,314원	NH올원 뱅크	새터 선발대 비건	농협 000079	최인영	40	
72	2019/02/22 01:05:35	32,000원		15,440,114원	NH올원 뱅크	원페모두의 노동발제문	농협 000079	최인영	39	

73	2019/02/22 01:04:34	13,000원		15,472,114원	NH올원 뱅크	원페 마인텔 상품	농협 000079	이승준	38	
74	2019/02/22 01:04:04	3,000원		15,485,114원	NH올원 뱅크	원페 마인텔 물품	농협 000079	이승준	37	
75	2019/02/22 01:01:12	6,500원		15,488,114원	NH올원 뱅크	새터 사무비 hdmi	농협 000079	이승준	36	
76	2019/02/21 21:41:54		79,000원	15,494,614원	PC신한 은행	이승준	신한 0263106			중집 새터비.
77	2019/02/21 17:57:50	13,200원		15,415,614원	NH올원 뱅크	css골드벨 상품 환급	농협 000079	김도연	35	
78	2019/02/21 15:40:48		367,200원	15,428,814원	E-우리 은행	일치공구	우리 0842718			
79	2019/02/20 19:57:59	61,300원		15,061,614원	실시간 이체	11PAY	농협 000541		34	사무비(프린터기 잉크비)
80	2019/02/20 11:45:56	45,627,500 원		15,122,914원	S-국민 은행	새터비 기획사	농협 000079		33	39번 항목에서 추가금(손망실 금액) 납부.수수료 500원 발생.
81	2019/02/20 00:43:22	9,000원		60,750,414원	NH올원 뱅크	새터 버스 주차비	농협 000079	박정순	32	
82	2019/02/19 22:37:39		200,000원	60,759,414원	E-국민 은행	황지현	국민 0194220			c반 공동구매
83	2019/02/19 22:33:04		322,100원	60,559,414원	PC국민 은행	김지용	국민 0040100			c반 공동구매
84	2019/02/18 11:36:03		313,000원	60,237,314원	실시간 이체	허현준	농협 001191			꿈반 공동구매

85	2019/02/15 21:17:53	12,960원		59,924,314원	NH올원 뱅크	제로윳놀이 상품 환급	농협 000079	김민정	31	
86	2019/02/15 16:52:01		188,000원	59,937,274원	PC신한 은행	장미정	신한 0263106			트랩드 새터비
87	2019/02/15 09:58:13	117,000원		59,749,274원	NH체크	한솔도시락 신림9동고 시촌점	농협 000079		30	새터 선발대 증식
88	2019/02/15 08:10:05		30,000원	59,866,274원	PC신한 은행	조경화	신한 0263106			소나무 공동구매
89	2019/02/15 02:56:18	4,311,350 원		59,836,274원	스마트 당행	공동구매 물품 금액	농협 000079		29	
90	2019/02/15 01:42:49		457,550원	64,147,624원	PC기업 은행	B공구물품 비?	기업 0033378			
91	2019/02/15 01:05:24		79,000원	63,690,074원	NH올원 뱅크	나침반 새터비 추가	농협 000445			
92	2019/02/15 00:33:56		32,000원	63,611,074원	실시간 이체	박민성	농협 001191			한음반 새터비
93	2019/02/14 18:53:53	32,000원		63,579,074원	NH체크	(주)러빙헛	농협 000079		28	새터 비건식
94	2019/02/14 18:46:36	2,400원		63,611,074원	NH체크	(주)양재드 림디포	농협 000079		27	새터 사무비
95	2019/02/14 17:00:03	34,810원		63,613,474원	NH체크	서울대생활 협동조합	농협 000079		26	원폐, 해방5종 상품
96	2019/02/14 16:54:03	15,600원		63,648,284원	NH체크	서울대생활 협동조합	농협 000079		25	원폐 상품
97	2019/02/		1,800,000원	63,663,884원	실시간	서울대사회	농협			

	14 15:56:00				이체	대	000079			
98	2019/02/ 14 15:23:30	11,400원		61,863,884원	NH체크	CU서울대 학교신양점	농협 000079		24	해방5종 상품
99	2019/02/ 14 13:06:15	30,000원		61,875,284원	NH체크	캐논코리아 비지니스솔 루션(주)	농협 000079		23	
100	2019/02/ 14 12:24:53	47,000원		61,905,284원	NH올원 뱅크	저소득층새 터비환급	농협 000079	박진우		
101	2019/02/ 14 12:24:01	79,000원		61,952,284원	NH올원 뱅크	저소득층새 터비환급	농협 000079	강현욱		
102	2019/02/ 14 11:08:09		161,300원	62,031,284원	PC신한 은행	소나무공구 비	신한 0263106			
103	2019/02/ 14 11:01:25	36,000원		61,869,984원	NH올원 뱅크	새터비건식	농협 000079	박은희(러빙 햇 스마일점)	22	60번 항목에서 4,000원 환불
104	2019/02/ 14 09:52:18		190,200원	61,905,984원	E-신한 은행	악반새터공 구	신한 0218737			
105	2019/02/ 13 22:16:22	16,000원		61,715,784원	NH올원 뱅크	모두의노동 물품환급	농협 000079	표승희	21	
106	2019/02/ 13 21:14:42		614,900원	61,731,784원	PC국민 은행	김태영	국민 0040100			불꽃반 공동구매
107	2019/02/ 13 19:43:49		476,700원	61,116,884원	NH올원 뱅크	외교나침반 물,술공구	농협 000079			
108	2019/02/ 13 18:58:59		47,000원	60,640,184원	PC국민 은행	박종현	국민 0040100			알반 새터비
109	2019/02/ 13	23,200원		60,593,184원	NH올원 뱅크	뒤집기오목 환급	농협 000079	최인영	20	

	18:45:33									
110	2019/02/13 18:45:23		79,000원	60,616,384원	PC신한은행	최인영	신한 0263106			중집 새터비
111	2019/02/13 16:14:38		223,000원	60,537,384원	폰카카오	박성호	카카오뱅크 0900032			한음반 공동구매
112	2019/02/13 16:13:26		315,850원	60,314,384원	E-우리은행	한길새터공구비	우리 0203195			
113	2019/02/13 16:07:34	10,000원		59,998,534원	NH체크	캐논코리아 비지니스솔 루션(주)	농협 000079		19	
114	2019/02/13 15:41:20		271,200원	60,008,534원	실시간이체	김형찬	농협 001191			알반 공동구매
115	2019/02/13 10:07:41		271,800원	59,737,334원	PC국민은행	거래반공구비	국민 0040100			
116	2019/02/13 02:00:20	64,000원		59,465,534원	NH올원뱅크	비반새터비 환불	농협 000079	하진우		
117	2019/02/13 01:54:33	47,000원		59,529,534원	NH올원뱅크	알반새터비 환불	농협 000079	오예슬		
118	2019/02/13 01:40:38		79,000원	59,576,534원	PC기업은행	경제b새터비	기업 0033378			
119	2019/02/12 22:49:26		335,000원	59,497,534원	E-우리은행	하진우	우리 0201870			비반 새터비
120	2019/02/12 22:37:48		47,000원	59,162,534원	NH올원뱅크	거래반후반 참추가	농협 000350			
121	2019/02/12 21:41:56	16,200원		59,115,534원	NH올원뱅크	스피커환급	농협 000079	김수환	18	

122	2019/02/12 17:41:08	48,750원		59,131,734원	NH체크	서울대생활 협동조합	농협 000079		17	원폐, 해방5종 물품
123	2019/02/12 17:34:12	74,540원		59,180,484원	NH체크	서울대생활 협동조합	농협 000079		16	원폐, 해방5종 물품
124	2019/02/12 17:27:18		690,000원	59,255,024원	PC국민 은행	김민지	국민 0040100			츄플 새터비
125	2019/02/12 17:24:39		96,550원	58,565,024원	스마트 당행	김민지	농협 000079			츄플 공동구매
126	2019/02/12 15:54:49		47,000원	58,468,474원	E-신한 은행	최남주	신한 0213392			한길반 새터비
127	2019/02/12 15:41:00		79,000원	58,421,474원	PC국민 은행	김태영	국민 0040100			불꽃반 새터비
128	2019/02/12 11:54:09		188,000원	58,342,474원	폰카카 오	박진규	카카오뱅 크 0900032			FY 새터비
129	2019/02/12 10:16:03	16,000원		58,154,474원	NH올원 뱅크	나침반새터 비환불	농협 000079	이준표		
130	2019/02/12 02:00:24	14,000원		58,170,474원	NH올원 뱅크	원폐보드판 프린트	농협 000079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15	총학 플로터
131	2019/02/12 01:33:35	39,500원		58,184,474원	NH올원 뱅크	나침반새터 비환불	농협 000079	이철민		
132	2019/02/11 21:03:16	23,500원		58,223,974원	NH올원 뱅크	나침반새터 비환불	농협 000079	권형구		
133	2019/02/11 20:22:28	16,000원		58,247,474원	NH올원 뱅크	한음반새터 비환급	농협 000079	이민호		
134	2019/02/	74,500원		58,263,474원	데이콤P	네이버페이	농협	네이버페이	14	새장단 코스튬(완장)

	11 20:00:08				G		000079			
135	2019/02/ 11 17:29:37	39,500원		58,337,974원	NH올원 뱅크	한길반새터 비환급	농협 000079	박기정(서울 대 한		수수료 500원 발생
136	2019/02/ 11 16:56:10	16,500원		58,377,474원	S-하나 은행	불꽃반새터 비환급	농협 000079			수수료 500원 발생
137	2019/02/ 11 14:06:16		2,714,500원	58,393,974원	E-우리 은행	경제b새터 비하진우	우리 0200172			
138	2019/02/ 11 13:50:17		830,000원	55,679,474원	PC신한 은행	경제b새터 비	신한 0215921			
139	2019/02/ 11 12:48:53		329,000원	54,849,474원	PC국민 은행	김태형	국민 0040100			사자후 새터비
140	2019/02/ 11 09:08:59		1,000,000원	54,520,474원	E-우리 은행	경제b새터 비하진우	우리 0201870			
141	2019/02/ 10 23:46:45		79,000원	53,520,474원	E-우리 은행	꿈반박진수 전참	우리 0205724			
142	2019/02/ 10 18:04:43		1,000,000원	53,441,474원	E-우리 은행	경제b반새 터비하진우	우리 0201870			
143	2019/02/ 10 17:38:33		526,500원	52,441,474원	PC기업 은행	소진희	기업 0033378			고어헤드 새터비
144	2019/02/ 10 17:36:07		425,000원	51,914,974원	NH올원 뱅크	정유단	농협 000079			바람몰이 새터비
145	2019/02/ 10 17:34:56		79,000원	51,489,974원	E-신한 은행	약반새터비 추가	신한 0218737			
146	2019/02/ 10		694,000원	51,410,974원	PC신한 은행	조경화	신한 0263106			소나무 새터비

	17:00:59									
147	2019/02/10 16:50:25		235,000원	50,716,974원	PC국민 은행	고민정	국민 0040100			자스민 새터비
148	2019/02/10 14:31:56		971,500원	50,481,974원	폰카카 오	오예슬	카카오뱅 크 0900032			알반 새터비
149	2019/02/10 01:22:35		1,788,500원	49,510,474원	NH올원 뱅크	나침반 새터비(2)	농협 000445			
150	2019/02/09 23:02:08		2,000,000원	47,721,974원	폰카카 오	오예슬	카카오뱅 크 0900032			알반 새터비
151	2019/02/09 19:03:52	32,500원		45,721,974원	S-하나 은행	볼꽃반새터 비환불	농협 000079			수수료 500원 발생
152	2019/02/09 18:30:05	47,500원		45,754,474원	S-우리 은행	한길반새터 비환급	농협 000079			
153	2019/02/09 18:17:52		3,000,000원	45,801,974원	NH올원 뱅크	외교/나침 반새터비(1 )	농협 000445			
154	2019/02/09 11:03:57		75,000원	42,801,974원	PC국민 은행	씨반새터비 끝	국민 0040100			
155	2019/02/09 05:53:59		1,573,000원	42,726,974원	E-국민 은행	씨반새터비 (3/3)	국민 0199377			
156	2019/02/09 05:51:42		2,000,000원	41,153,974원	E-국민 은행	씨반새터비 (2/3)	국민 0199377			
157	2019/02/09 05:50:19		2,000,000원	39,153,974원	E-국민 은행	씨반새터비 (1/3)	국민 0199377			
158	2019/02/09 00:37:12		6,142,500원	37,153,974원	E-신한 은행	경제A반	신한 0263711			

159	2019/02/08 22:43:09		4,653,000원	31,011,474원	E-우리 은행	일치반새터 비	우리 0842718			
160	2019/02/08 17:51:20	50,000원		26,358,474원	NH체크	웰빙마트	농협 000079		13	새터 올림마당 상품
161	2019/02/08 17:16:07		47,000원	26,408,474원	NH올원 뱅크	거래반후반 참추가	농협 000350			
162	2019/02/08 12:48:12		2,690,000원	26,361,474원	E-우리 은행	허현준(곰 반)	우리 0205724			곰반 새터비
163	2019/02/08 11:44:43		2,670,500원	23,671,474원	E-우리 은행	한길반새터	우리 0203195			
164	2019/02/08 06:08:52		3,722,000원	21,000,974원	E-신한 은행	사회악반새 터비	신한 0218737			
165	2019/02/08 01:32:40		2,839,000원	17,278,974원	폰카카 오	한음반새터 비	카카오뱅 크 0900032			
166	2019/02/08 01:02:27		1,000,000원	14,439,974원	E-우리 은행	허현준(곰 반)	우리 0205724			곰반 새터비
167	2019/02/08 00:30:46		879,500원	13,439,974원	폰카카 오	거래반새터 비2	카카오뱅 크 0900032			
168	2019/02/07 23:42:01		2,000,000원	12,560,474원	폰카카 오	거래반새터 비1	카카오뱅 크 0900032			
169	2019/02/07 21:40:02	6,900원		10,560,474원	S-K뱅 크	생문팀게시 판사업환급	농협 000079		12	수수료 500원 발생.
170	2019/02/07 17:48:45	144,000원		10,567,374원	스마트 당행	기조자보	농협 000079		11	
171	2019/01/	36,000원		10,711,374원	스마트	수티 내규	농협		10	

	30 20:08:17				당행	프린트	000079		
172	2019/01/ 29 14:23:45	275,000원		10,747,374원	S-국민 은행	한양관광버 스협동조합	농협 000079		9
173	2019/01/ 28 16:59:25		275,000원	11,022,374원	E-국민 은행	홍정선	국민 0068783		
174	2019/01/ 26 14:47:01	275,000원		10,747,374원	S-국민 은행	홍정선	농협 000079		새터 답사 버스 금액. 업체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셔서 해당 금액 받고 다른 계좌로 다시 보냄.
175	2019/01/ 22 21:24:26	623,700원		11,022,374원	스마트 당행	새하사 복장 환급	농협 000079		8
176	2019/01/ 18 15:59:59		11,000,000 원	11,646,074원	실시간 이체	새맞이지원 금	농협 000079		
177	2019/01/ 17 10:05:34		320,000원	646,074원	NH올원 뱅크	근장비	농협 179591		근장비 기부금.
178	2019/01/ 16 21:23:09		2,000원	326,074원	CD현금	039-0059	농협 002004		학생회실 청소 중 발견한 현금 입금 내역.
179	2019/01/ 16 21:12:10	32,900원		324,074원	실시간 이체	11PAY	농협 000541		7 사무비(A4 용지)
180	2019/01/ 12 11:05:11	13,000원		356,974원	NH체크	파리바게뜨 서울대입구 역2호점	농협 000079		6 수시생 오티 레크 상품비
181	2019/01/ 10 10:37:02	13,000원		369,974원	NH체크	파리바게뜨 서울대입구 역2호점	농협 000079		5 수시생 오티 레크 상품비
182	2018/12/ 31	50,400원		382,974원	NH체크	11번가	농협 000079		4 사무비(프린터기 잉크비)

	16:26:53									
183	2018/12/23 09:18:16		10원	433,374원	예금이 자		농협 000079			
184	2018/12/21 20:26:18	200,000원		433,364원	스마트 당행	기말간식사 업환급	농협 000079		2 3	
185	2018/12/17 15:04:27		600,000원	633,364원	실시간 이체	자치지원금	농협 000079			
186	2018/12/10 15:14:17	10,000원		33,364원	NH체크	캐논코리아 비지니스솔 루션(주)	농협 000079		1	
187	2018/12/09 05:45:02		43,364원	43,364원	NH올원 뱅크	최용혁	농협 000079			학생회비 이월금
188	2018/12/05 14:55:02		0원	0원	신규		농협 000079			

###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발제 /  
36대 사회대  
학생회

수입		지출			
이월금액	567,252	경상지출	사무실 유지비	500,000	
학생회비 배분	2,000,000		자보 인쇄비	500,000	
자치지원금	13,500,000	중간/기말 간식사업		400,000	
		단학대회 자료집		200,000	
		해오름제	음식 및 주류	700,000	
			무대 및 조명	2,000,000	
			물품 및 기타	1,500,000	
		2019 사회대 교육권리운동	기자회견 및 집회	100,000	
			전시	100,000	
			플랑, 자보 및 공동행동 사무비	1,000,000	
		농민학생 연대활동	버스비 지원	1,000,000	
			자료집	200,000	
			식비 및 생활용품	2,000,000	
			MT비	400,000	
		사회대라운지 전시사업		50,000	
		생리대 비치사업		200,000	
		사회대 리부트		300,000	
		사회대 체육대회		200,000	
		동아리 지원금		4,000,000	
		예비비		317,252	
학내/외부 단체 연대 지원금		300,000			
하반기 이월금		100,000			
합계	16,067,252	합계	16,067,252		

## 논 의 안 건

1.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및 총노선
2.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3. 교육권리공동행동 사업계획의 건
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

## <목차>

### 0. 들어가며: 시대인식으로부터 학생회론을 펼쳐놓는 이유

#### 1. 사회현실과 대학생의 삶, 학생회의 역할

- 1.1. 끊임없이 유예되는 노동기본권
- 1.2. 우리 사회 성 이해의 민낯과 무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
- 1.3. 대학 민주주의의 유보와 통제되지 않는 대학
- 1.4. 2019년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학생

#### 2. 서울대학교 학생사회 평가

- 2.1. 2018 공동체 투쟁으로 확인한 가능성과 한계
- 2.2.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활동을 위한 첫걸음
- 2.3. 사회대 학생총회와 대중행동으로서의 교육권리운동
  - 1) 상시적 교육투쟁의 필요성
  - 2) 2018년 사회대 교육권리운동의 성과
  - 3) 반성적 평가와 대안
- 2.4. 공동체성의 회복과 문화로서의 자치

#### 3. 2019년, 어떤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한가?

- 3.1. 공동체의 결속에서 시작하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 3.2. 장기적인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 3.3.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 3.4.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 4. 각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사회대학생회의 실천 방향

- 4.1. 법인화된 대학구조에 맞서 학생참여와 교육권리를 요구하자
- 4.2. 평등한 공동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자
- 4.3.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행동하자
- 4.4.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맞서 새로운 결속의 기회를 마련하자

## 0. 들어가며: 시대인식으로부터 학생회론을 펼쳐놓는 이유

사회대학생회는 매년 총노선을 다루면서 학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를 담은 시대인식을 함께 서술하였다. 그 이유는 대학생의 삶이 단지 이 좁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구성원인 학생들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대학정책과 대학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회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하여 당장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회 활동의 한 축이라면,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하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학생회 활동의 다른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활동이 학우들의 일상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정확한 시대인식에 대한 공동체적 고민과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제37대 사회대학생회 역시 총노선을 서술하기에 앞서 시대인식을 서술하면서 공동체적 고민과 토론을 도모하고자 한다.

## 1. 사회현실과 대학생의 삶, 학생회의 역할

지난 일 년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한국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한 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공언해왔다. 노동계, 인권운동계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기대를 일말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출범당시 밝혔던 페미니스트 대통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대학 운영방식의 민주화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구호의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전 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정부 차원의 전향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을 경험한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해결할 책임이 여전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전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현 정부는 시대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이전보다 전향적인 지점이라 한다면 사회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공론장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토론에 참여할 책임은 여전히 시민주체에게 남아있다. 총장직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정부의 제안은 권고 수준에 그칠 뿐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결정은 민간주체들 간의 합의에 내맡겨졌다는 점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온정적 태도에만 기대어 사회개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회'를 대학생 구성원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시민주체 단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민주체 단위로서 학생회는 공론장의 의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는다. 사회적 관점에서 학생회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중에서 '구성원인 학생들의 직접적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과, 학생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학생회가 '더 나은 사회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개념이라기보다는 후자의 내용이 전자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 역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이므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삶의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거시사회와 대학생의 삶을 함께 관통하는 관점 위에서 학생회의 시대인식과 총노선은 서술되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채택하였다면,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적절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사회구성단위들과 토론해나가는 전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들을 대학생의 삶과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 1.1. 끊임없이 유예되는 노동기본권

학생회와 노동자 권리의 상관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시도되어왔다. 우리도 곧 모두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당사자성에 입각한 관점, 대학 현장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노동의 실질적인 사용자 중 한 주체이므로 건전한 고용구조를 유지할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사용자적 관점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논의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곳에서는 이 중 하나의 관점을 채택하기보다는 학생회와 노동자 권리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모든 논의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동조건과 고용구조는 그 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지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는 분배받은 각자가 '가치'를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여가를 향유하므로 노동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회와 노동자 권리를 연관 짓는 논의들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노동의 문제를 빚겨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비교적 적은 수준의 노동을 통해서도 나름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가치'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모세대의 노동이 자식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동조건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이 노동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들의 부모세대가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모세대가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어떻게 배분받는지의 문제는 그들에게 생활 조건을 의탁하고 있는 대학생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대학생회는 2019년을 "끊임없이 유예되는 노동기본권"의 시대로 평가하고자 한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기사의 죽음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점화시켰다. 노동자는 사회발전의 연료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

리 고된 작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안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인력고용과 안전 장비의 확보가 필요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 쉽게 치환되며 해결되지 못하고 유예되어 왔다. 그로 인해 똑같은 상황이 2018년, 2019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2016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분노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이 시행되었으며 국회는 피해자 청년의 이름을 딴 '김용균 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4월 또 다른 노동자가 같은 노동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전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라는 목표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노동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안전관리규정을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규정과 실제 노동환경 사이에는 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해 많은 경우 위험한 노동환경이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강요된다. 비정규직이나 외주화 등의 이유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꼭 안전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임금, 노동 강도 등 포괄적인 노동환경에 대하여서도 노동자는 고용주와 동등한 주체로서 계약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 착취적인 고용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고용자 간의 자생적인 권력관계만으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고용구조 개선 및 최저임금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그 실태는 최소한 서울대학교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여전히 구색 맞추기 용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고용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의 조정이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의 형태만 무기계약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채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되었던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동자들의 파업은 직접고용 이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던 노동조건을 시중노임단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나마 개선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였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조차 노동자들이 직접 파업까지 해가며 목소리를 내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현주소이다.

심지어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기존에 계약직의 형태로 학과사무실 운영을 위해 고용해왔던 직원들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추가고용 없이 해고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부담은 학과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동료직원, 조교,

근로장학생과 학과사무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수에게 온전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는 우리 대학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글로벌사회공헌단의 경우 인솔 직원들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공헌단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열망에 대하여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학생회는 시민단체로서 건전한 노동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학내 노동환경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생회 차원의 뚜렷한 기초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1.2. 우리 사회 성 이해의 민낯과 무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

버닝썬 게이트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추행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유명 클럽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유명 연예인은 성관계 현장을 불법 촬영하여 지인들과 돌려보던 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세와 맞물려 "장자연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재점화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여성을 성적 수단으로 대상화하여 소비하는 문화가 유명인과 고위층 인사들의 엽기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이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하던 양진호 사장에 대한 논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지점은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카르텔이 수백억에 달하는 수입을 내며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 제작자들을 직접 관리해왔다. 이들은 또한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불법촬영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올렸다. 여성의 성을 돈벌이를 위하여 수단화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해 온 경영방식은 사회의 묵인, 암묵적 동의하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버닝썬 게이트를 닮아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이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은 오히려 범죄자들과 유착관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 내 자정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그동안 여성에 대해 도구시해오던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도권 유명 교육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동료 여학생들을 상대로 '남자대면식'이라는 이름으로 외모 품평을 진행하여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불과 4년 전인 2015년에 남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된 바 있다. 이들은 절대 분리되는 개별 사건들이 아니며, 실현되는 양상만 조금씩 다를 뿐 당장 우리 주변에도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문화가 당연하다는 듯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버닝썬과 양진호를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

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성 이해에 있다. 우리는 이를 바꿔나가야 할 책임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주체들에게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바꿔나가자 한다. 사회대학생회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이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내의 문화를 돌아보는 활동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1.3. 대학 민주주의의 유보와 통제되지 않는 대학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학가에서는 총장직선제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지난 총장선출시기부터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총장직선제를 요구했고,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타협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생들 또한 총장선출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출과정에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던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수세적으로 나오면서 총장직선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학생들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 평가 반영비율만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폐쇄적이고 권력주체들의 자기보위적인 총장선출방식의 폐해는 곧 드러났다.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강대희 당시 후보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공론화되었고, 강대희 후보자는 결국 논란 끝에 사퇴하게 된다. 이 사건은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과연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구성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채 총장선출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총장선출과정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구호는 단순히 학생들의 권한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선출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는 기존 제도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총장선거는 진행되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대학의 문제는 학생들의 이해와 밀접한 사안에서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폭력 및 갑질을 저지른 대학교수에 대하여 대학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학과 및 단과대에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지난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성적처리규정 엄정화 조치는, 학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대평가적 요소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대학당국에 의해 제안되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의 우려 속에서 개정은 유보되었으나, 교육적 고민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대학당국에 의해 계획되었고 실제 실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수업의 내용, 방식과는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수치화하여 줄 세우는 방식은 교육의 질을 도약시키기 위한 고민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이처럼 구성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대학은 본연의 존재 목적마저도 방기한 채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 1.4. 2019년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학생

2019년 대학생은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으며 노동, 인권, 대학 어느 분야에서든 각자의 현장에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생이라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파업이 발생했고 학생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주체로 호출되었다. 파업이라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물었고, 힘겨운 논의 끝에 학생들은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선택에 대한 당장의 평가를 유보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 대학현장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제3의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학생이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만큼, 대학 내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단과대 및 학과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투명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지, 부족한 수업과 한정된 예산 사이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학교와 노동자 간의 계약은 어떤 수준에서 체결되어야 하는지, 공동체 내의 성차별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학생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회는 단지 수동적인 주체로 남기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정말 잘 대변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토론은 상시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가령 지난 2월 파업과 같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회 단위에서 기존에 노동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론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연되는 시간만큼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마다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해나갈 수 있는 고민과 토론이 준비되어 있을 때 대학생은 유능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일상적인 고민과 토론을 늘 준비해나가야 한다.

## 2. 서울대학교 학생사회 평가

지난 1년 동안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많은 일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행동했다. 전체 서울대학교 차원에서는 H교수 투쟁, 총장선출과정 개선 요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이 전개되었고, 사회대학생회에서는 교육권리운동이 진행되어 5.10 학생총

회를 성사시켰다. 사회대리부트와 체육대회 등의 자치행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생 사회에서 지난 2018년은 '자치공동체의 결속'과 '대중적 투쟁'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병행하여 공존할 수 있는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된 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제들에 직면해왔고, 지금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가?

### 2.1. 2018 공동체 투쟁으로 확인한 가능성과 한계

H교수파면투쟁은 시흥캠퍼스 철회투쟁 이후 대중적으로 진행 된 가장 큰 운동이었다. H교수에 대한 규탄 입장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사회대 학생총회는 H교수 파면을 결의하였다. 다양한 학생회 단위들이 참여하는 천막투쟁이 수개월 간 지속되었으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학생들의 단식투쟁이 이어졌다. H교수 파면투쟁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사회가 동참했던 대중적 투쟁이 되었다. 시흥캠퍼스 철회투쟁으로 이후 드러난 공동체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학생사회가 동참하며 진행된 H교수 파면투쟁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결집된 공동체적 투쟁의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우들의 열망과는 대조적으로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H교수에 대한 3개월 정직 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학생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문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전 학생사회가 동참하는 강도 높은 투쟁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수용되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대학행정에서의 공식적인 학생 참여권 없이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학생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투쟁의 종료 이후 대학당국이 제시한 교원징계규정의 마련마저도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징계규정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와 같이 대학사회 내의 공고한 교수권력구조는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 동일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통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학생권리의 무력함은 총장선출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사회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고한 권력 앞에서 학생회는 구성원 직선제라는 요구조차 관철시킬 수 없었고, 간선제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은 정책평가비율 8%에 지나지 않았다.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교수집단의 목소리 앞에서 학생회는 무력했다. 따라서 지난 1년은 따라서 학생사회가 단지 당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던 한 해였다. 학내 의사결정구조는 당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며, 교수-학생-직원 간 권력관계가 복잡하게 경쟁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생회가 실질적인 학생 권리의 증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단지 옳은 말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상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2.2.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활동을 위한 첫걸음

그렇다면 학생회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을 만들

어나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학생회는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꼭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도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모든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판단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학생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성 및 평가를 남김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성적으로 이전의 방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반복하기만 한다면 학생회 활동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2018년을, 이전까지 학생사회를 지배했던 "학생회 무용론"으로 압축되는 자조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회 활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한 해로 평가하고자 한다.

2018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하였다. 사회대학생회,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생회 단위들이 참여한 "공동행동"은 서울대학교 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학생 간 연대를 결성하였다. 학생들이 과연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수많은 학생단체들이 활동에 결합했고, 이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학내 노동문제 공론화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토록 학생들이 학내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과 직접 연관되는 지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학과사무실, 식당, 강의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은 우리가 대학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노동의제와 관련한 고민들을 함께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의제에 대한 상시적인 토론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은 지난 2월 기계전기노동자 파업을 경험하며 분명히 드러났다. 파업 초기 학생-노동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했고 양자 간의 해소되지 못할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곧 "공동행동"에서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왔던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노동자 간 대화를 추진하며 상황이 반전되었다. 학생-노동자 사이의 기본적인 오해들이 해소되었고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조정됨에 따라 학생회가 노동자 파업에 연대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생회활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례로 사회대학생회에서 진행된 교육권리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권리운동은 이전까지 학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만을 중심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대 교육환경 개선협의회를 대중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교육권 의제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2018년은 학생사회가 직면했던 수많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시도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생회 활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2.3. 사회대 학생총회와 대중행동으로서의 교육권리운동

#### 1) 상시적 교육투쟁의 필요성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학생 일반의 이해관계 문제로 언어화해내고 이에 대한 공동의 움직임을 조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의 움직임은 단순히 학교 측이 학생의 권리를 위협하는 공세를 해 올 때 (법인화 정책의 일방적 강행이나 시흥캠퍼스의 학생 의견 수렴 없는 추진 등) 대응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어적인 대응만을 할 때, 학생회는 무력하다. 이미 진척된 학교의 정책을 막으려고 궁지에 몰려야만 존재감을 드러내고 투쟁하겠다고 나서는 학생회는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위기의 순간에만 등장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들의 일상 속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 해결을 대중의 정치적 요구로 확장해나가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터져야만' 교육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존속하는 한, 학생의 교육권리를 위한 대중적 움직임을 조직하는 일은 언제나 필수적이다.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상시적 교육투쟁이 필요하다.

## 2) 2018년 사회대 교육권리운동의 성과

지난 몇 년 간 16동 24시간 개방 및 학생자치공간 확충이라는 공간권 문제, 지나치게 큰 수업규모와 소수학과의 전공수업 부족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사회대 학생회는 이에 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만들지 못해왔다.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 창구는 학장단과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이었으나, 교개협이 학생회장단이 학생들의 민원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게 되면서 사회대 학생회는 교육권 문제 해결에 번번이 실패해 온 것이다. 사회대 학우들의 교개협 요구에 대해 대중적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교육권 문제에 대해 사회대 본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역대 학생회 또한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교개협 대응으로 문제 해결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사회대 학생들은 학우들이 겪는 일상적 경험을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내는 교육권리운동을 선언하고 힘차게 전개했다. 몇 년간 사회대 학생들의 요구였던 공간권, 수업권 문제를 포함해 사회대 학생회가 그간 공론화에 노력해온 차등등록금 문제, 사회학과 학생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공론화된 H교수 파면 문제 등을 사회대인 공동의 요구로 내걸고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20년도 넘는 시간만에 성사된 사회대 학생총회는 학우들이 스스로 교육권리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요구안을 토론했다. 채택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로 16동 24시간 개방 등 수년간 실현되지 않던 요구가 현실화되었고, 어느 정도 교육권 운동에 대한 효능감도 복원된 바 있다. 학교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협소한 일상을 넘어 학생들의 힘을 모아 쟁취하는 변화로, 교육권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내고 대중적 교육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 3) 반성적 평가와 대안

한편, 2018년의 경험에서 일보 전진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권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권리운동에서 제출된 요구안 중 일부는 사실상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학생회의 교섭으로 완결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학장단과의 교섭 및 농성이 실현방안으로 제시되어 일부 요구안이 수용되었으나, 그 외의 요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후대 학생회의 과제로 남겨졌다. 사회대 학생회가 처한 한계를 직시하되,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대에서 시작하여 대학 전체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이를 위해 요구안 각각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뒷받침되어, 의제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사회대 교육권리운동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서울대에 새로운 대안과 전망을 제시해야할 과제가 관악 사회대 학생회 앞에 놓여있다.

#### 2.4. 공동체성의 회복과 문화로서의 자치

2018년 사회대 학생사회가 남긴 또 하나의 과제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고민이다. 사회대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자치문화를 가지고 있는 과/반 학생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사회대학생회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공론장에서 건설적인 비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방식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사회대 학생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성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반 학생회와 사회대학생회는 유리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생회의 공동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학생회는 학생회원들의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이고, 누군가의 이해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대학생회라는 하나의 학생회 단위 아래 소속되어 있다는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이 사회과학대학이라는 구조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이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공동의 고민들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직면한 교육권 문제, H교수 파면투쟁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대 학부생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성을 다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공동체만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활동이다. 새내기새로배움터, 축제, 장터, 일일호프 등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가 단과대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단과대 공동체 내부에서 고유하게 형성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문화는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내부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은 그 자체로 공동체적 활동이다.

첫 번째 방식을 외부환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면, 두 번째 방식은 공동체 내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

회대학생회는 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내외 문제에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나가면서 달성해왔다면, 후자에 대해서는 내부규약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내의 문화를 성찰하면서 달성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부의 문화를 다지는 활동이 여태까지 사회대학생회 활동에서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수년 동안 관성적으로만 진행되어오던 사회대 축제, 특정 과/반만 참여하는 사회대 차원의 활동, 사회대에 소속되어 동아리활동을 이어오던 동아리들에 대한 무관심 등 내부적 문화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해 진행되었던 체육대회의 사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체육대회는 진행과정 상의 많은 변화와 성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반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던 행사이다.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사회대 구성원들이 문화행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대학생회가 구성원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남김으로써 내부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문화 활동에 고민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대학생회에 부여된 과제일 것이다. '자치'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구성해나간다는 의미이고, "문화"로 대변되는 인간 활동의 영역 또한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대외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뿐 아니라 대내적 문화 활동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2019년, 어떤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2018년을 되돌아보면서,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사회대학생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 3.1. 공동체의 결속에서 시작하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지난 수년 간 사회대학생회는 과/반 간 차이의 심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내부에서 사회대학생회라는 공동의 정체성이 다져지지 않는 한 사회대학생회의 활동은 한계적이며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대학생회가 11개 과/반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해당 단위들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점이, 단지 선언적인 방법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대학생회가 앞으로 정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고민 또한 사회대공동체의 이해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전제 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에 대한 의견이 토론되어야 한다. "투쟁"으로 대변되는 대외적 활동과 "복지"로 대변되는 대내적 활동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해묵은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라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 위에서 학생회의 활동이 고민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 3.2. 장기적인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교육권리운동, H교수 파면투쟁, 총장선출과정개선 논의,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등 사회대학생회가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은 단기간의 논의로 완결되기보다는 수년을 바라보고 계획되어야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총장 후보자 사퇴, 파업 등 구체적인 정세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체적 관심이 환기되지만, 평소에는 공동체 내부에서 토론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월 기계전 기노동자 파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를 요구받는다는 점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총장선출과정에서 강대희 후보자가 사퇴했을 당시에 학생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재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총장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언제 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야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하는 학생회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대학생회는 일상적으로 공동체 내외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필요하다면 활동에도 결합하여, 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요청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먼저 제시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제출하여 의견과 평가를 요청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회가 학우 개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회와 개인이 운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인 반면, 학생회는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 회의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민과 토론을 이어나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학생회가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를 공동체에 제출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체적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론의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대학생회의 장기적인 역량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3.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학생회는 내부적 조직으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 환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우리는 대학의 구성원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생회가 구성원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한다는 것은 학생이 대학의,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또한 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학생이 대학운영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학내 노동문제를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대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사회대학생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서술한 시대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학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들은 우리를 빗겨가지 않고 우리의 삶

을 다양한 방향에서 규정해 들어온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의 왜곡된 성 이해, 불합리한 교육제도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이것이 정말 대다수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학생회원이라도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 곁에 함께 설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사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 **3.4.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담론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매년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학생회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구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인 삶을 얼마나 바꿔왔느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의 가능성에 힘입어 2019년에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대학생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대학생회에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해서, 사회대학생회가 한 순간에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서술한 바 있는 공동체의 결속, 장기적인 역량,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고려 위에서 활동을 축적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 또한 하나 둘 찾아올 것이다.

## **4. 각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사회대학생회의 실천 방향**

지금까지 총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사회대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큰 틀에서 서술하였다. 지금부터는 각론을 통하여 세부적인 의제에 대해 각 의제별로 사회대학생회가 취해야 할 입장과 실천계획을 담고자 한다.

### **4.1. 법인화된 대학구조에 맞서 학생참여와 교육권리를 요구하자**

#### **-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대학통제권의 문제**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조치로 인해 서울대학교의 최종통제권이 법인이사회로 넘어갔다. 법인이사회는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들이 아니라 학내외 유명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직이었으므로, 대학 구성원의 입장에서 법인화는 곧 대학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4년 총장 선출 당시 구성원 평가에서 2등을 한 성낙인 후보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정체불명의 집단에 맡기는 서울대 법인화 조치에 대하여 2011년 서울대 학생사회는 강렬한 투쟁으로 저항했으나,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안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으로부터 서울대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법인화조치였으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익사업이 확대되

기 시작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하고자 매년 인력감축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법인화 조치는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켰다. 구조적으로는 법인이사회에 최종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대학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기업과 다르고 달라야 함에도, 법인화조치는 서울대학교가 기업적 의사결정과정을 전면화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학 운영 과정에서의 학생참여와 구성원의 대학통제권 문제는 법인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학생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결국 법인이사회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교수-학생-교직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평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학생회에 남겨진 주요한 과제이다. 현재 평의회는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총학생회장의 참관권만 허락되고 있다. 평의회 구성원 46명 중 41명이 교수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평의회가 아직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대학생회는 이사회로부터 구성원의 대학통제권을 확보하고, 평의회 구조 개편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확립할 것을 요구해나가야 한다.

#### **- 대중적 요구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권리를 쟁취해나가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권리는 오랜 기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원에 가까운 형태로 처리되어왔다. 사회대에서 매년 진행되어 온 교육환경개선협의회는 사회대 학장단과 사회대학생회가 단과대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2017년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로 기능해왔다. 가령 사회대학생회에서 교육권리요구안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사회대 학장단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구속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다 보니, 많은 경우 교육권요구안은 실현되지 못한 채 다음 학생회의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 2018년 사회대학생회는 이러한 틀을 깨고자 대중적인 토론과 행동이 동반되는 교육권리운동을 기획했다. 교육권 요구안을 과/반별로 수합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협의회를 진행하는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교육권 요구안을 설정하고 함께 토론하고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교육권 요구안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단지 등록금을 내고 주어지는 수업을 여건에 맞추어 한정적으로 듣다가 졸업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각자가 원하는 공부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하는 학교당국에게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도 사회대학생회는 학생들의 교육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

다. 차등등록금 문제도 전공수업확충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류학과/심리학과/지리학과 전공생들에게 부여되는 추가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사실 인류학과/심리학과/지리학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두가 우리의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사회대 당국은 이에 대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구성원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운영방식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것이다. 사회대학생회는 사회대 자체 예결산 및 8개 학과/학부에서 사용하는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를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공수업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공수업은 졸업을 하기 위하여 꼭 들어야 하는 수업임에도, 강의가 충분히 개설되지 않거나 정원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대학생회는 전공강의 확충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사회대 당국은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대학생회는 단과대 및 학과/학부의 예결산안을 검토하여 예산 부족이 실질적인 이유인지를 검토하고, 예결산 내역 중 교육재정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강의의 수용인원만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수업의 양적/질적 측면의 증진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작년 2학기 서울대학교 당국은 각 수업에서 30% 이하의 학생에게만 A학점을 부여할 것을 일괄적으로 강요하는 성적처리규정 엄정화 조치를 시도한 바 있다. 학생사회의 반발로 계획은 유보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상대평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성적처리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수강생 사이에서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는 평가방식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이 수행한 학업에 대해 내용적 평가가 이루어지보다는 성적의 근거가 분명하게 산출되는 양적 평가방식을 조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강의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이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서열화가 강요되는 방식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행평가방식에 대한 재고와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원칙의 일괄적용 규정을 폐기하는 것을 2019년의 사회대학생회는 요구해나가고자 한다.

#### 4.2. 평등한 공동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자

사회대학생회는 매년 새터에서 내규를 작성하고 토론하면서 인권친화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새터뿐만 아니라 일 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성을 고민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버닝썬 게이트와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을 돈벌이를 위해 도구화해온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사회대에는 매년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요청하고 있으나 늘 해결되기 어려운 장애인이동권 문제

가 남아 있고, 장애인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업 대필시스템은 상시고용되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봉사로 유지되고 있다. 학내 권력 관계에서 학생은 약자이며,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 문제가 대학 내에서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집단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대학생회는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장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글 속에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 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토론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고, 차별적인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권력 관계를 약용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삶마저 짓밟은 교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파면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상의 활동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구성원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사회대학생회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다.

#### 4.3.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행동하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곳곳에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서울대학교의 정규직화 정책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월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계약직의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만이 요청될 뿐 세부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노동자-고용자 간의 교섭에 맡겨지고 있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작업장에서도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노동자파업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일말의 개선이라도 요구하고자 결의된 것이었다. 학과사무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이 진행 중이다. 사회대당국은 기존에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던 학과사무실 직원 4인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계약만료와 동시에 순차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민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대학생회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노동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인 대학에서부터 고민하고 행동해나가자 한다.

#### 4.4.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맞서 새로운 결속의 기회를 마련하자

사회대 학생회는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맞서 자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매년 새맛이를 하고,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여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 자치공동체는 안팎에서 수많은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학생회 행사에 모이는 인원은 해마다 줄어가고, 선후배·동기간의 유대는 약화되었다. 매년 학생회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궤위단위'가 속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강요하는 스펙·학점경쟁은 대학생들을 상호 간 경쟁으로 내몰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요인 중 하나이다. 일명 '대학가 금주령'으로 불리는 교육부의 학내 주류판매 규제 탓에 수십 년을 이어온 '장터'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판단 하에, 오늘날 학생사회가 처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마땅히 학생회의 책임일 것이다. 학생회칙은 학생회장이나 집행부가 아닌, 소속 학생 전체가 학생회의 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문장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에 가깝다. 학우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밌는 자치사업을 기획하되, 말초적인 쾌락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듦으로써 파편화된 학생 개인을 공동체로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맛이, 축제 등 연례행사를 마지못해 준비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즉, 새로운 기획과 참신한 발상으로 지금의 사회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바를 학생회가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과/반 기층단위와 사회대 학생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과/반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대 학생회가 완성된 형태의 자치사업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식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과/반이 직접 사회대 자치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단순한 일회적 경험으로서의 자치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방안을 새로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2.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계획

발의 /  
사회대  
학생회장단

교육권리	인권사회	문화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사회대 교육공동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촬영 대응</li> <li>●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li> <li>● 예비군 민원창구 운영</li> <li>● 사회대 라운지 전시사업</li> <li>● 장애인권 보장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대 축제(가)</li> <li>● 사회대 농민학생연대활동</li> <li>● 2019 사회대 리부트</li> </ul>

### ▶ 불법촬영 대응

작년 사회대 내에서 실제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회적으로 관련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우 분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권사회팀에서는 불법촬영 대응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 본부 차원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단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회 차원에서 단속에 동참하려고 하며, 본부 측의 단속 결과를 학우 분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대 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생리는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을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사회대 2층 중앙 여자화장실과 사회대 도서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현재 비치 중이며 관련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아 발전적인 형태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 예비군 민원창구 운영

예비군 출석 인정 문제 등 예비군 불편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사회대 라운지 전시사업

사회대의 많은 학우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대 라운지를 다양한 사회적 주제 공론화 및 의견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대 라운지 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를 주제로 전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주제로 전시사업을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 달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 장애인권 보장사업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사회대에는 그러하지 못한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16동 정문 유리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달라는 등의 배리어프리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사회대 및 학교 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 사회대 축제(가)

작년까지 ‘해오름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왔던 사회대 봄축제를 올해는 많은 부분에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대 축제는 재미가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은 학우들에게 있는 만큼,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 먼저 축제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사회과학초등학교(가)’라는 컨셉을 통해 많은 학우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대 학생회의 다른 사업들과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대 봄축제 기획단’을 따로 모집하여 축제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 ▶ 사회대 농민학생연대활동

농민학생연대활동은 사회대에서 매 해 여름 진행하던 행사로, 농민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부터 농민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생각들을 정립하고, 또한 농민과 학생의 위치를 고민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 2019 사회대 리부트

여름 방학이 끝나가는 8월 말, 사회대 리부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치가 약해지고 공동체적인 삶이 흔들려가기에, 다시 한 번 자치에 대해 생각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으로써 리부트를 진행하겠습니다. 2박 3일 간 함께 자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면 함께 자치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학우들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19 교육공동행동 사업계획

발의 /  
단대운영위원회  
회

지난해 5월 10일, 사회대 학생들은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대 건물 야간개방' '전공수업 추가 개설' 등의 요구안이 학교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모아 학생의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서울대에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1) 지난해 교육권리운동의 성과로 일부 전공강의 정원이 확대되었지만, 이로써 사회대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개설 문제에서 관건은 '얼마나 많은 학교 예산이 강의개설에 투입되고 있느냐'인데, 사회대의 단과대/학과별 예산을 열람할 수 없는 탓에 강의 추가개설을 위한 요구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부재합니다. 학기 초에 진행된 과/반별 교개협에서 해결되지 않은 요구안 역시 근본적으로 학과재정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해결 가능합니다. 한편, 학교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응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과/학부 예산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치지원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과/반 학생회는 거의 없으며, 많은 경우 예산 사용의 통제권은 당사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학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치문화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금을 과/반 학생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요구해나가야 합니다.

2) 서울대는 2004년 이래 'A등급 비율을 30% 이내로, A등급과 B등급의 합을 70% 이내로, C등급 이하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상대평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급별 비율을 강제하는 상대평가 원칙은 무의미한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수의 평가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받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상대평가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이미 변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오직 서울대만은 여전히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서울대 학사과는 올해 안에 학생 의견을 반영한 성적처리규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생 간 경쟁보다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성취를 존중하고, 교수의 자율적인 평가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평가제도를 세워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3) 지난해 학생들의 열띤 투쟁에도 H교수는 사회학과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학교는 학생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교원징계규정을 신설할 것을 약속한 바 있

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학교가 뒤늦게 내놓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엔 ‘사건 조사 및 징계 결정에 학생 참여’, ‘교원징계 관련 정보 대중공개’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제도적 대안의 미비로 인해 교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5월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기획단’을 출범하여 5월 16일(가안) 대중행동 개최를 목표로 2019 교육공동행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제출된 학생 요구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하나, 사회대 단과대학과별 회계자료 공개 및 전공수업 확충
  - 사회과학대학 예결산, 사회대 8개 학과의 예결산 회계자료를 학생에게 공개하라!
  - 전공수업을 추가개설하여 사회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
  - 과/반 학생회에 주어지는 반 자치지원금을 신설 및 확충하라!
  
- ▶ 둘, 30:40:30 상대평가 학칙규정 폐지
  - 학칙상 규정된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고 성적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 셋, 성폭력 가해교수 퇴출 및 학생의견 반영한 교원징계규정 신설
  -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서울대에서 퇴출하라!
  - 학생과 소통하여 민주적인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하라!

## 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

발의 /  
단대운영위원  
회

### 1.1. 제안배경

현행 사회대 학생회칙은 '사회대 학생총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며 사회의 변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경제B/비반 학생회, 경제C/시반 학생회, 사회복지학과/한길반 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심리학과/일반 학생회, 언론정보학과/꿈반 학생회,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 지리학과/겨레반 학생회, 한음반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후략)

사회과학계열 광역 모집이 이루어지던 시절 대부분의 과/반 학생회에서는 학과명/반이름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정해왔지만, 한음반 학생회의 경우 인류학과와 분리된 한음반학생회만의 명칭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전공예약생만으로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과/반과 마찬가지로 한음반도 인류학과 전공예약생만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시금 과/반 학생회와 소속 학과 사이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음반 학생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내부적으로는 이미 학생회의 명칭을 인류학과/한음반 학생회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사회대 학생회칙에서도 정확한 명칭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1.2. 안건 내용 및 해설

현행 사회대 학생회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경제B/비반 학생회, 경제C/시반 학생회, 사회복지학과/한길반 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심리학과/일반 학생회, 언론정보학과/꿈반 학생회,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 지리학과/겨레반 학생회, 인류학과/한음반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개정 2019.04.04.>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개정 2007. 10. 04.  
전문개정 2009. 10. 13.  
전문개정 2010. 11. 17.  
부분개정 2011. 9. 26.  
부분개정 2013. 5. 20.  
부분개정 2015. 9. 21.  
부분개정 2017. 10. 13.  
부분개정 2018. 04. 02.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며 사회의 변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경제B/비반 학생회, 경제C/시반 학생회, 사회복지학과/한길반 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심리학과/알반 학생회, 언론정보학과/꿈반 학생회,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 지리학과/겨레반 학생회, 한음반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정·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5조(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과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6조(소속)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속한다.

제7조(권한)

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③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8조(학교당국과의 관계)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제2장 회원

### 제9조(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②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10조(권리)

- ①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제11조(의무)

- ①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장 의결기구

###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3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제14조(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소집)

- ①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안 발의)

-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4.02.>
-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③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 ② 학생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③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④ 정·부학생회장의 소환
- ⑤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 ⑥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 ⑦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 ⑧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 ⑨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 ⑩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 ⑪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 ⑫ 사업계획의 승인
- ⑬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 ⑭ 결산안의 승인
- ⑮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 제2절 총투표

제19조(지위)

- ①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 ②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실시)

- ①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 발의)

-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 ① 총투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제23조(권한) 총투표는 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3절 학생대표자회의

제24조(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5조(구성)

-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인,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 ②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26조(의장)

- ①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소집)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학생회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직권 소집 때는 사전 공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8조(의안 발의)

- ①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칙 개정안은 출석 학생대표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대표자회의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권한)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 ② 학생회칙의 개정
- ③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④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 ⑤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 ⑥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 ⑦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 ⑧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 ⑨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 ⑩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 ⑪ 사업계획의 승인
- ⑫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 ⑬ 결산안의 승인
- ⑭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 제4절 운영위원회

제3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3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학생회장
- ②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 ③ 동아리연합회와 학생회장이 궐위 중인 본회의 단위는 일정 기간 자단위를 대표할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대표자의 운영위원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어진다.

제33조(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4조(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의 직이 꺾어진 경우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②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④ 집행위원회에 대한 탄핵

⑤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⑥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⑦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⑧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⑨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⑩ 사업계획의 승인

⑪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⑫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제4장 집행기구

### 제1절 정·부학생회장

제37조(지위 및 직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④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8조(자격)

- ① 정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하고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7.10.13.>
- ② 부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하고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9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소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생회장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0조(선출 및 임기)

- ① 정·부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 성사 시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41조(선서) 정·부학생회장은 다음의 선서를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2조(권한)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
- ②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집
- ③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 ④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 ⑤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 ⑥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 및 해임
- ⑦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 ⑧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 ⑨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43조(의무)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소환)

- ① 정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총회는 정·부학생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소환안이 발의된 경우 소환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 제45조(궐위)

- ① 정·부학생회장이 소환, 사고 또는 임기 만료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정·부학생회장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정·부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의 임기 만료 혹은 학생회장 선거 무산으로 학생회장 직이 궐위된 경우 혹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장 제79조의 절차에 따라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가 구성된다.

## 제2절 집행위원회

제46조(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 제47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의장)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9조(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 ②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 ③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 ④ 집행위원은 본인의 지위 및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학생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을 가진다.

#### 제50조(집행위원의 의무)

- ① 집행위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③ 집행위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51조(집행기구)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5장 과/반 학생회

제52조(지위) 과/반 학생회는 각 학생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 기구이다.

제53조(구성) 과/반 학생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부 및 기타 각 과/반 학생회칙이 정한 기구로 구성된다.

제54조(과/반 학생회장) 해당 과/반 학생회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과/반 학생회장은 당해 과/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 및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55조(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반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생회장 선거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6조(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 기구이다.

제57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제58조(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제59조(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0조(의결)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 ② 선거시행세칙의 해석
- ③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제2절 학생회장 선거

제62조(선거 시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10월 혹은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총회 혹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다른 시기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정·부학생회장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제65조(당선자 확정)

- ① 정·부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확정한다.
-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③ 정·부학생회장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66조(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결선투표)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재선거)

- ①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학생회장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다음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③ 재선거는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④ 3월 재선거도 무산되었을 시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선거를 실시한다.

제69조(선거시행세칙)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기타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특별기구

제70조(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72조(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73조(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장 학생회비

제74조(구성 및 운용)

- ①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비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 ③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의 학생회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75조(집행)

- ① 학생회비는 경상비, 사업비, 선거관리비로만 집행될 수 있다.
- ② 학생회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제76조(결산) 학생회비의 결산은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7조(보고)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보 등을 통해 1학기 2회 이상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 78조(회계감사위원회)

- ①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 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 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장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 제1절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 제79조(구성)

- ① 학생회장 궐위 상황임과 동시에 제45조 3항에 따라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반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원이 된다.
- ③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제80조(지위)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정·부학생회장 궐위 시 설치되는 임시 기구이다.

### 제81조(목적)

- ①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본회가 규정하는 정식기구인 정·부학생회장직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정·부학생회장직 복원의 목적은 재선거에서 뿐 아니라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가 의결하는 모든 사업의 목적이 된다.

### 제82조(권한 및 직무)

- ①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부의장은 정·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③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는 재선거 혹은 정식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83조(설치) 중앙집행위원회는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설치된다.

### 제84조(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중앙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동의를 받아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이 임명한다.

제85조(의장)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이 임명한다.

제86조(권한 및 직무)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부칙

제87조 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88조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의결한다.

##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김중률 곡

Dm F

사 - 랑도명 - 예 노 이 름도남김없 이  
동 - 지는간 데 없 고 깃 - 발만나부 깨

Gm Dm A7 Dm

한 평 생나 가 자 던 뜨 거운 - 맹 - 세  
새 날 이올 때 까 지 혼 들리 - 지 말 자

Gm Dm F C F A

세 월은 흘 러 가 도 산 천은 안 다

Gm Dm E E7 A A7

매 이 나 서 외 지 는 뜨 거운 함 성

Dm Gm F A A7

앞 - 서 서나 가 니 산 - 자 여따 르 라

Dm F A Dm

앞 - 서 서나 가 니 산 자 여따 르 라 *Fine*